

-  호인: 마싯겟당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통칭은 버드미사일...
-  리포: 설정 :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지만, 전승에서 그 한방을 쓰고 전신이 터져버렸다는 일화도 구현되어서 죽는다
게임성능 : 쓰고 즉사가 걸리는 고배율 전체공격기
-  호인: 버드ㅋㅋㅋㅋㅋ미사일ㅋㅋㅋㅋ
살벌하네요
-  리포: HP가 애매한 잡몹들 처리하고 빠르게 라운드 넘어가거나
-  Mekabob: 아라쉬가 카미가카리에서 배워놓은 역사를 바꾼 일격이 스텔라...
-  리포: 버프걸어서 강적들 빠르게 정리하거나...
-  Kaming (GM): 자 모두들 온듯하시군요
출책
-  쿠사카베 린: 썩썩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ㅋ
-  아라쉬: 손
-  호인: ㅇ
-  Kaming (GM): 흐무흐무
-  호인: 'ㅅ'
-  Kaming (GM): 5분에 시작할게요
-  호인: 넵!
-  Kaming (GM): 잠시 장실점!
야호
왔습니다.
그럼 시작해볼까요
-  호인: 다녀오셨어용
네넵
-  아라쉬: hoi
-  Kaming (GM): =====
여러분들은
하사시로 대교에 있는 숨겨진 기둥을 찾았지만
보르스와 로즈블루의 방해를 받았습니다.
하지만 이를 격퇴하나....기둥은 작동하고 말았죠.
하사시로 시는 대교에있는 기둥을 중심으로
-  Kaming (GM): 영력결계의 뒤덮혔고....
'사신'이 되어버린

기사단장이자 [성 미카엘]의 이름을 받은 기사.
샤를 다레스와 마주하게 됩니다.

 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하아...제 소중한 동료들은 당해버린것 같군요"
하늘에 유유히 떠있으면서 별 감흥없는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.

 호인: '감각이 요동친다...이 정도의 패기라니!!'

 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뭐 하지만 괜찮습니다.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할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으니 말이죠"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날카로운 분노를 담긴 시선으로 올려다보겠군요.

 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'도구'로써는 합격점일려나요"

 호인: "뭐...!?"

 쿠사카베 린: "뭐라고!?" @발끈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....."
@그의 말에는 인상이 더 험악해져요

 호인: "그녀의 말대로 완전히 사신에게 집어삼켜졌나 보구나..."

 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그러다가
여러분에게 시선이 가고
반가운 사람은 봤다는듯 활짝웃습니다.
"이거이거 우리의 '성녀'님 결국 그쪽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신거군요."
" '전'동료는 등지고 새로운 '동료'...아니 도구들이려나요? "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시끄러워, 성녀네 뭐네 하면서, 결국 너도 마찬가지로 취급 하고 있었잖아!"

 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그렇습니다. 저도 이런 모습이 되고나서야..."
"목표를 위해서라면 동료들따위 '도구'로써 다루는게 이상적이라는걸 깨달았답니다."
"동료에 같은 하찮은것에 '대의'를 저버릴 순 없는법이지요"
본래 샤를은 이런말을 내뱉을만한 인물이 아닙니다만...사신에게 먹혀버린뒤로 여기저기 어긋나버린듯하네요.
정반대같은 인물로
"제 역할은 신의 뜻을 이행하는것.."

 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그것에 이용당했다 하더라도. 그들은 너그러히 저를 용서해주겠지요"
@십자가를 들고 입을 맞춥니다.

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의 말을 듣고는 상처 받은 표정이네요. 솔직히...믿고 있었으니까. 위안 삼고 있었으니까.

 호인: "지금의 저자에게 어떤 말도 통하지 않겠지 그림자에 가려진 저 눈에 다시금 광명을 되찾아줘야할것이다"
"명심하거라 저것이 그의 진짜 모습이 아니란것을!"

 쿠사카베 린: "세상사 자기 좋을대로 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네..."
"큰코 다치게 해줄 거라고!"

 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자 그럼 신의 뜻을 저버린 여러분들을 지금 이자리에서 심판...하고싶지만"
"개인적인 감정에 일을 그르치면 안되는 법이지요..저는 신의 뜻에 따라.."
@팔을 벌리며

"이 마을에 불신도들을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"

@그의 눈에는 광기마저 보이는군요

"그러니 여러분들에 대한 심판은 조금 뒤로 밀어야겠군요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@아쉽다는듯
여러분을 바라봅니다.



호인: "그리 둘거같으냐!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신의 심판...이네에.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후훗 발악하는것을 짓밟는것또한...재미"
"열심히 발버둥쳐보시죠"
"불신자 여러분.."
@검은 구멍이 열리더니 그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.



쿠사카베 린: "뭐, 뭐야 저거 잘난 듯이-!" @뽕뽕



Kaming (GM): 그리고 뒤이어 여러분 뒤에 아키가 등장합니다.



와타나베 아키: "하아..하아..드디어 찾아왔다"
열심히 뛰어왔는지 땀을 흘리고있네요.



호인: "아키? 여기엔 어떤일로 오게된것이냐"
@다가가용



와타나베 아키: "지금 하사시로 시에 펼쳐진 영력결계... 이 기둥이 원인인것 같아서요"
@기둥을 짚으며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그야...그렇겠지..."



와타나베 아키: "이 기둥을 조사하면 뭔가 해결책이 발견될지도 몰라요. 그래서 제가 직접 뛰어왔습니다."
라며 핸드폰을 꺼내들며
"다마다마. 일할시간이야"
기둥에 핸드폰을 붙여놓습니다.
"이 기둥은 신도가 만든거예요. 그러니 해킹이 가능할지도.."



호인: "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린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?"



와타나베 아키: "잠시만..."
핸드폰 화면을 응시하는 아키
그리고..

다마다마: @띠링
"해킹 성공. 정보 해석개시.....완료"



와타나베 아키: "이건....잘하면 샤를 다레스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"
"영력결계는 기둥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각 기둥과 연결되어있어요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상처입은 동물같은 눈을 하고, 조용히 아키의 말을 듣고 있군요.



와타나베 아키: "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송할게요."
정보 9 공개

호인: "그런가! 서둘러야겠군!"



와타나베 아키: "연결점만 끊는다면...영력결계에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샤를 다레스는 움직임이 제한되겠죠"



쿠사카베 린: "방법만 알았다면 이쪽 차례지!"



와타나베 아키: "하지만 조심하세요. 분명 그쪽도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연결점을 제거하는걸 방해할지도 몰라요"



호인: "염려 말거라"

"언제나 했던일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이니 말이다"



와타나베 아키: "서둘러야합니다. 샤를 다레스는 민간인들의 혼을 노리고있어요"

"늦으면 늦을수록 피해는 커질꺼예요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.....후아...."

@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고...십자가를 꾸욱 쥐었다가 놓고....고개를 끄덕



호인: @그런 세실리아를 돌아봤다가 고개를 끄덕합니다



아라쉬: "그렇다면. 인원을 나누는게?"

"탐색했을 때 처럼 말야."

-



호인: "그러는게 좋겠구나"



쿠사카베 린: (맵으로 돌아가서 각 기둥들을 체크해야겠군..!)



와타나베 아키: "그럼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"



Kaming (GM): 그렇게 씬아웃

=====

잠시 마스터씬 진행하겠습니다.

....

어두운 어딘가

하사시로 시를 비추는 거울을 보는 한 사람..



쿠사카베 료우: "....."

"시작됐군요."

어둠속에 누군가에게 말을 겁니다.

?????: "아아 시작했어 시작했어. 이거 좋은 구경거리가 될꺼야"



쿠사카베 료우: "당신에겐 그저 구경거리군요."

@거울에 비친 하사시로 시를 보며

?????: "그럼! 좋은 구경거리지"

"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그 영혼을 빼앗고 있는 저 모습을 봐"

"완전 희극이라구 ㅋㅋㅋ"

"자신이 가장 증오하는 모습이 되어서말이지 이보다 재미있는 구경거리는 아마 없을꺼?"



쿠사카베 료우: "당신은 정말 쓰레기군요...."

?????: "그건 나에게 칭찬이라고?"@킥킥킥

"그리고 잊지마... 너도 나랑 같은 인종이야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저거 미츠루기 아야네다)

?????: "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 나...'사신'과 손잡은 녀석이니까"

" '신살자' 주제에 말이지 키키키키"



쿠사카베 린: (미츠루기 레퀴엠...)



쿠사카베 료우: "목적만 이룬다면..... 제일먼저 당신을 소멸시켜드리죠"

?????: "키키키키 자신을 죽이겠다는 녀석과 이렇게 한곳에 있다니 이 또한 엄청난 희극이네"

"자 잘봐두라고 '동업자'"



쿠사카베 린: (자신을 죽인다니..... 료우 레퀴엠...)

?????: "이세상에서 제일 웃긴 희극이 지금 시작할테니 말이야"

=====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아야네랑 료우랑 둘이서 러브러브 안데레 발동)



호인: (그만둬 린 우러웁ㅠㅠ)



쿠사카베 린: (이렇게되면 둘다 죽이고 린 레퀴엠...)



Kaming (GM): 히익

자 그러면

썬플레이어가 누구였었지



쿠사카베 린: 와칸나이...

넘나 오래된 것

로그, 로그를 보자



Kaming (GM): 아라쉬군요.



아라쉬: 나였구나



Kaming (GM): 다음 썬플레이어는 아라쉬데스



아라쉬: 흠

이거 탐색할때랑

비슷하게

오래 걸릴수록

안되는거죠?



Kaming (GM): 네



아라쉬: 그럼

어디로 누가 누구랑 갈지를

지금 정할까요?



호인: 그러지웁



Kaming (GM): 정보에 의하면 각 기둥을 연결하는 연결점을 제거하면

영력결계가 줄어드는거 같군요.



쿠사카베 린: 그렇군요

능력치별로 둘로 나뉘어서 하는 게 좋으려나요?



아라쉬: 전위/후위로 나눈다면
아라쉬/세실리아가 후위
호위/린이 전위가 되기도..
호위?
호인<



Kaming (GM): ㅋㅋ
호위



호인: ????



Kaming (GM): 호위무사 호인



호인: 근데 방어밖에 못한다고하니다
(?)



아라쉬: 그럼
아라쉬/호인
세실리아/린
이렇게 나누는것이 좋지 않을까?



호인: 문제 없군요
는 정신이 좀
둘다 낮은게 흠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근데 정신판정 어찌실)



Kaming (GM): 정신력이 낮군



아라쉬: 아아... 그렇구나
...그럼 아라쉬/린에 세실/호인 으로?
저번이랑 똑같은 조합이닝



호인: 그러네요



쿠사카베 린: 'ㅅ'



Kaming (GM): 수인조합이다
(ㅅ트, ㄹㄹ..)
(읍읍!)



호인: 특별할것은 없는 조합



Kaming (GM): 그러면
아라쉬
초대할 인원 정해주세요.



아라쉬: 그럼. 린을 초대할게요
이동할 곳은..
연결지점
이란건
기둥이 있는 곳의 사이...겠쥌



쿠사카베 린: 넵



아라쉬: 기둥이 있는 곳이 아니라



쿠사카베 린: 그러고보니 영력이라던가 얼마남아있었지!



Kaming (GM): 아하

호인 145

린 43



호인: 토큰에 기입해서

기억하고 있었지요

는 수정을 안했네



Kaming (GM): 세실6531

아라쉬 66

영력 회복하고 가죠



아라쉬: rolling 2d6

(4 + 4)

= 8



Kaming (GM): 6644



호인: rolling 1d6

(2)

= 2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영문은?)



쿠사카베 린: rolling 2d6

(6 + 5)

= 11



호인: 저는 13남았습니다



Kaming (GM): 령문은 1+1+1+1 회복



호인: 앗...아아

회복이구나

4회복인가요



Kaming (GM): 네



호인: 넵



쿠사카베 린: 앗 HP랑 영문 얼마남았쥬 저..



아라쉬: 그럼 일단



쿠사카베 린: 꽤 깎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



아라쉬: 히사시로랑 미개발지구 사이의
연결점을



쿠사카베 린: 시트에도 실시간으로 기입할걸..그랬군



Kaming (GM): 리포 체력 21에 령문 -11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내 영문이 얼마냐는 의미였는데...)



아라쉬: 가봐야겠네요

-



Kaming (GM): 세실리아는 9
남았네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9+4?



Kaming (GM): 넵
리포님은 -11+4



쿠사카베 린: -7이군요



호인: 호인은 체력 0남았었는데
회복 되나요



Kaming (GM): 네 체력만큼 회복해주세요.



호인: 알겠습니다



Kaming (GM): 미등장시에는



호인: 7ㅋㅋㅋㅋ



Kaming (GM): 소회복하시구
썬에서도
탤런트 사용가능하니까
회복ㅇㅇ
세실리아에게 받으시면 좋을듯



호인: 다죽어가는구나 호인...



Kaming (GM): 그러면
린 등장판정
ㄱ



쿠사카베 린: rolling 2d6

(5 + 1)

= 6

냐냥



Kaming (GM): 성공



호인: 소휴식으로 HP 13회복
현재 HP 13/68



Kaming (GM): 씬 종료시라
등장판정 나중에 하실 수 도 있어서.



호인: 알겠습니다



Kaming (GM): 넵
그러면
씬 진행하겠습니다.

===

아라쉬와 린은 연결점을 찾기위해 같이 나섰습니다.
하늘에는 중앙에있는 하사시로 대교를 중심으로



Kaming (GM): 푸른빛이
기둥사이를 잇고있습니다.



쿠사카베 린: "저게 그 연결점이겠지?" @눈을 가늘게 뜨고 봅니다



아라쉬: "그런것 같네."
아슬아슬하게 속도위반이 되지 않을 속도로 도로를 달립니다.
"저걸 파괴하려면..."

-



Kaming (GM): 우선 연결점을 찾아야겠지요.
어떠한 방법으로 연결점을 찾나요?



쿠사카베 린: 흠 감지려나요
저 푸른빛 속에 유독 영력이 이질적인 부분을 감지해본다거나



Kaming (GM): 감지군요.
어디보자 난이도는 12드리겠습니다.



아라쉬: 감지면-
정신인가요



Kaming (GM): 행운입니다.



아라쉬: 행운이라면 해볼만하당!



Kaming (GM): 참고로 아라쉬는
어디방향으로 차를 이동하고있나요?



아라쉬: 미개발지구와
대학 사이네요



Kaming (GM): 좋습니다.



아라쉬: rolling 2d6+4

(1 + 1)+4

= 6

????



쿠사카베 린: 앓

아아...



Kaming (GM): 퍼엄블

@뽕뽕!!!!



아라쉬: 첫 주사위 액땀



Kaming (GM): 아라쉬는



아라쉬: 6이 1로



Kaming (GM): 감지에 집중하다가

차선을 넘어버렸군요!



호인: ???????



Kaming (GM): 여기저기서 뽕뽕거립니다.

다행히 사고는 면했지만...

위험했군요!

실패

린도 해보나요?



쿠사카베 린: 넵

rolling 2d6+6

(2 + 6)+6

= 14



Kaming (GM): 성공~

그러는 사이 린은

비즈니스 센터에서 이질적인 영력을 감지합니다.

D



쿠사카베 린: 이게 백안의 힘 (아님)

"저기! 저쪽인 거 같아!"

"내 눈이 틀림없어!" @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



아라쉬: "휴-"

"오케이!"



Kaming (GM): 잘도 사고날뻔한 차안에서 감지해냈군요



아라쉬: 그쪽으로 차를 돌립니다

-



Kaming (GM): -----

-비즈니스 센터-

영력결계에 뒤집혔다고는 하나..
 일반인들은 그저 평범하게 보입니다.
 이상을 느끼는것은 여러분과 같은 초상존재들 뿐이겠지요.
 그리고....



Kaming (GM): 비즈니스 센터중앙에있는 광장..
 그 한가운데..
 푸른색 거대한 구체가 떠있습니다.



아라쉬: "저게 연결점인가..."
 "마력덩어리... 라는 느낌인데."
 활을 만들어 줍니다

-



쿠사카베 린: "어서 해치워버리자!"



Kaming (GM): 웅웅...웅웅
 위협을 감지했는지
 이상한 소리를 내며
 주변을 진동시킵니다.
 그리고...
 바닥에서 거대한 벽이 구체를 둘러싸듯 감싸막고



Kaming (GM): 그 주변을
 보이지않는 결계가 감쌉니다.
 마치...
 방벽의 기둥에서 보았던 방벽들과
 저항의 기둥에서 보았던 결계가..그 구체를 지키려는듯 하네요.
 하지만 그렇게 강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.



쿠사카베 린: (오노레...)



Kaming (GM): 제일 낮은 난이도로 해제할 수 있을꺼같네요.



아라쉬: 정신과 지성이라니



쿠사카베 린: 나의 지성은 +8 !



아라쉬: 체력으로 해야겠다
 체력은 7에 스텐트맨 효과로 +2로 9
 6 교환으로 확정 성공이니
 체력으로 저항의 기둥 해제해볼게요



Kaming (GM): 넵



아라쉬: rolling 2d6+9

$$\begin{aligned}
 & (\boxed{5} + \boxed{6}) + 9 \\
 & = \boxed{20}
 \end{aligned}$$

Kaming (GM): 성공



아라쉬: 교환 없어도 성공!

아



Kaming (GM): 주작?



아라쉬: 5랑 1이랑

교환할게요!



Kaming (GM): ㅋ

네

그러면 아라쉬는 방벽을 덮고있던 결계를 벗겨내는군요!



아라쉬: 체력을 써서 결계해제...

발차기려나요

<

"좋아. 바깥의 결계는 이걸로 뚫고..."

-



Kaming (GM): 캉!

하며 보이지않는 결계가 유리처럼 깨지는게 느껴집니다.

rolling 1d2

(2)

= 2



쿠사카베 린: (옛)

(무, 무슨 룰이죠)



Kaming (GM): 진행하시죠 ^^



쿠사카베 린: "이걸로 하나는 해결..!"



Kaming (GM): 남은건

방벽뿐이군요

하지만



쿠사카베 린: 방벽도 마찬가지로 판정으로 해체하면 되는 거려나

옛



Kaming (GM): 결계가 깨지자..

방벽은 더욱 강고해진듯...! 그 크기와 강도가 단단해집니다.

2단계 난이도 상승



쿠사카베 린: 콧...!



Kaming (GM): 16이군요

지성이면



쿠사카베 린: 간바루...

여고생의 통찰력(지성)으로 방벽따위 해체(물리)한다!

이치노스케가 해줄거야 (뽀뽀)

약점부위를 찾아 뺑아뺑아 해봅니다!



Kaming (GM): 네



쿠사카베 린: rolling 2d6+8 가라아앗

(1 + 6)+8
= 15



Kaming (GM): 이치리 타리나이



호인: 앓...아아..



쿠사카베 린: 1과 3을 교환해서 성공!



Kaming (GM): 넵

성공



쿠사카베 린: "보였다!" @이치노스케에게 지시해서 약점을 집중사격합니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극사 나나야)



Kaming (GM): (미엠타)

투카카카카캉!

퍼엉

방벽은 이치노스케의 집중사격을 견디지못하고

부셔져내립니다.

남은건....



Kaming (GM): 웅웅 굴리고있는

거대한 푸른 구체



아라쉬: "휘유..."

"그 인형. 아쳐 클래스로 소환될수 있을 정도인데."

"자. 그럼."

"저것도 마저 처리해볼까."

-



Kaming (GM): (아쳐!)



쿠사카베 린: (활을 든 아쳐!)



Kaming (GM): 푸른구에겐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어보입니다.

좋을데로 부시면 됩니다



아라쉬: 활에 화살을 건 뒤에

정 가운데를 꿰뚫어 쏩니다



Kaming (GM): 폭

파각....

찌적...

화살을 맞은곳을 중심으로

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..
빛을 잃어버립니다.



Kaming (GM): 일

않

그리고 하늘을 보면...
이 기둥사이를 이어주던 빛이 서서히 사라져
방벽의 기둥주변과 저항의 기둥 주변의 영력결계가 걷히는군요
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여러분을 보고



Kaming (GM): 놀라는 눈치입니다.



아라쉬: हाले

재빨리 영체화 시켰겠네요
"다음 지점으로 움직일까."

-



쿠사카베 린: 놀라는 사람들에게 '데헛' 윙크를 보내고
아라쉬와 함께 다음지점으로 가도록 합니다



Kaming (GM): 남은기둥은

생명의 기둥과..바람의 기둥

=====

다음 씬 플레이어는 호짱이네요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그는 죽었다. 내가 먹었지.)



Kaming (GM): (보팔레빗!!)



호인: 무슨

음료수 가져오느라 늦었을뿐!
세실리아 초대후 생명쪽으로 가볼까요



Kaming (GM): 네

세실리아 등장?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잠시)

(콜라였었어)



Kaming (GM): 호엑



호인: (히익



쿠사카베 린: 히이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등장은 하져
(대충 정리 끝)



Kaming (GM): 등장판정 ㄹㄹ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rolling 2d6

(3 + 1)

= 4



Kaming (GM): (롤롤입니다 로ㄹ아닙니다)
(오해금지!)
주작?



호인: 영력주작ㅋ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눔



Kaming (GM): =====
호인과 세실리아는 아라쉬들과 떨어져
반대쪽 연결점을 찾기위해
길을 나섰습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이쪽은 교통수단이 없군...



호인: (영력에도 냄새가 있으려나..(?)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옥상에서 옥상으로 점프하면서 가도록 할까요...



Kaming (GM): (글썩요?)
(우사기 점프인가)



호인: @호인도 그렇게 가겠군여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영력으로 하는 점프니까 부자연스럽지도 않군요.



Kaming (GM): 어딘가에 연결점이 있을겁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누가 보면 큰일나겠지만 영력결계 안이고...



Kaming (GM): 일반인들 눈에는 보이지않겠지요



호인: 동물적인 감각으로 추적할만한 느낌일까요 그 푸른빛은
(갑자기 브금이;;



Kaming (GM): 가능하겠지요.



호인: 추적 해봐도 될까요?



Kaming (GM): 추적이군요..
난이도는 14



호인: rolling 2d6+11

(2 + 1)+11

= 14

위험했다;;



Kaming (GM): 텃
그러면



호인: @귀를 쫓긋 세워서 영기의 흐름을 느낍니다

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!



Kaming (GM): 호인의 감각에

무언가 잡히는군요...

이츠츠노미야 병원 옥상인듯 합니다!



호인: @쫄긋쫄긋 귀를 움직이며 시선을 돌립니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하지만 우주도 딱딱한 비트코인은 구원하지 못해)



호인: 병원 옥상쪽으로 몸을 비틀어 달려나갑니다



Kaming (GM): (가즈아...한강!)



호인: (한강정모가 이걸



Kaming (GM): 병원에 도착하면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아?"

@그럼 나중에 눈치채고 천천히 선회해서 따라오겠군요...



Kaming (GM): 푸른색 구체가 주변과 너무나도 안어울린체 똥똥 떠있습니다.



호인: @탓 하고 착지

저는 체력으로 해야겠군요

"이것이로군"



Kaming (GM): 웅---웅---

호인과 세실리아를 감지한듯..



호인: "아까부터 귀를 울리는 기묘한 소음.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흠..."



Kaming (GM): 주변이 진동합니다!



호인: "뭣...!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생명이랑 뭐였지)



호인: 바람



Kaming (GM): 그리고 기둥을 감싸듯

바람이 거세게 불며



호인: (생명 바람 저항 방벽



Kaming (GM): 기둥의 접근을 방해합니다.

그리고 녹색넝쿨들이

푸른색 구체를 감싸죠



호인: 올ㅋ



Kaming (GM): 웅----웅----!



호인: 체력판정 가도 되나욱!



Kaming (GM): 네 무슨 기둥?



호인: 어디보자...음
무슨 기동을 할까요?
남은건 저항 생명
으로 알고있는데음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둘다 하면됨)



호인: 올ㅋ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제가 바람을)



호인: (반대구나
(제가 저항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생명이져 우리는)



호인: 잠시 헛갈;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저희 생명/바람)



호인: (아항 감사합니다
(제가 생명하면 되겠네요
(롤하면 되나요?



Kaming (GM): 넵



호인: rolling 2d6+9

(3 + 5)+9

= 17



Kaming (GM): 성공
호인이 넵쿨을 해결하는군요!



호인: @손톱을 세워서 녹색 덩쿨을 죄다 찢어버립니다



Kaming (GM): 남은건 바람뿐



호인: 바람 없어진 후에 가려고 했는데



Kaming (GM): rolling 1d2

(2)

= 2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럼...난이도 18?
@지성으로



Kaming (GM): 슈우우우
어디선가 날아온 십자가가
주변에 박힙니다.
그리고 그 직후

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죠!
샤를의 방해공작인듯합니다!



호인: "크웃!!"



Kaming (GM): 난이도 2단계 상승
웅---!웅----!웅-----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지성으로 18이군요



Kaming (GM): 주변의 진동은 더욱 강해졌습니다.
넵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rolling 2d6+6

(2 + 6)+6

= 14



Kaming (GM): 싯빠이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2랑 5를 바꾸죠
@6531 > 6321



Kaming (GM): 17로 실패?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아 머야 그렇군)
(근데 롤 잘못했는데?)
(수정치 9인데 6으로...)



Kaming (GM): 그렇군용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리롤?)



호인: 띠요옹



Kaming (GM): 리롤해주시정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rolling 2d6+9

(1 + 1)+9

= 11



Kaming (GM): ^^



호인: 뉘?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네 술법은 다 알고 있어..." @라고 중얼거리면서 자신있게 해체하는데....



Kaming (GM): 주변의 십자가들도 푸른구체와 같이 동조하듯...
진동합니다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오히려 함정을 건드린 모양. 샤를도 바보는 아니니까요.



호인: "세실리아!!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아?"



Kaming (GM): 그리고 해제하려는 세실리아에게
바람이 집중되는군요
슈우우우웅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맞음시다...



호인: 엡 이거 막아줄수 있나요
치료해줘요



Kaming (GM): 뭐 피해는 가지않아요
단지
영력이 조금 뒤틀려
제일 높은 영력이 1이될뿐
펄효과



호인: 아하



Kaming (GM): 그리고 바람은 더욱 거세져
난이도 +1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바람은 빗겨보냅니다만...영력이 꼬이면 살짝 기침하겠네요...



호인: "괜찮으냐!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재판정 가능? 무리던가)



Kaming (GM): 가능합니다.
재판정
대신
난이도는 +1해서
최고난이도군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20이던가...



Kaming (GM): 지성 20
민첩 18
바람은 이제 눈을 뜨기도
힘들만큼
거세졌습니다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영력연소 호인
@다이스 2개추가



호인: 어 잠시만요
저도 시도해봐도 되나요 민첩이면



Kaming (GM): 네
가능해요



호인: 애껴웁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먼저 ㄱ)



호인: rolling 2d6+11

(2 + 2)+11

= 15



Kaming (GM): EE

공신의 가호



호인: 2와 4교환

17

아니다

5교환

+3



Kaming (GM): 네 호인이 바람을 가르는군요!

영력 처리해주시고



호인: "흐음!!"



Kaming (GM): (저분 민첩 왜저리 괴물이야)



호인: (이것이 소재조합의 힘인거시다

(*소재합성



Kaming (GM): 그러면 바람은 사라지는군요

남은건 푸른구체뿐

불안한듯 웅웅 거립니다.

십자가는 바람이 사라지자...

가루가 되어 사라졌구요



호인: @구체를 잡고 그대로 우그러뜨리듯이 힘을줘

뿌수겠습니다

베어허그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.....후우."

@살짝 기침을 가라앉히고는...



Kaming (GM): 빠지지직!



호인: @걱정스런 표정을 하며 세실리아에게 다가와용

*부수고나서



Kaming (GM): 푸른구체는 부셔지며

빛을 잃습니다.

그리고..

하늘의 빛이 서서히 열어짐과 동시에

영력결계가 걷힙니다.



호인: "괜찮으냐...?"



Kaming (GM): 이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것은..

중양의 기둥 주변뿐이군요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네 몸이나 걱정하지 그래."

@투덜대면서 고위치유를 쓰지

@영력1 쓰고



Kaming (GM): 촌촌

하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rolling 2d6+9

(1 + 6)+9

= 16



호인: @그리고보니 이전 싸움으로 몸이 걸레가된것을 지금에서야 깨달음



Kaming (GM): 성공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rolling 2d6*3+15

(1 + 3)*3+15

= 27



Kaming (GM): 힐량 굴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3을 5량 바꾸죠



Kaming (GM): 9+15인가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15+15로



Kaming (GM): 16+15

1515

30

회복



호인: 오웅

힘이돌아온다!



Kaming (GM): 참고로

미등장하셨으니

저번썬에

소회복 효과 두분다 적용하시길



호인: 13회복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풀이야)



호인: 아직도 풀체가 아니네

"걱정해줘서 고맙다"

@이내 살짝 웃습니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걱정? 참나."

@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보더니 획 걸어가버려요.

@할일도 끝났고...



호인: @그짓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따라가겠네음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이렇게까지 뒤틀린 성격은 아니었는데...



Kaming (GM): 촌촌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아무래도 옛 동료들과 싸우고...옛 단장에게 도구라고 불리고...



쿠사카베 린: (아 미등장시 처리...)

(흠흠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많이 아프기도 하고, 옛날 성격이 드러나는 걸지도 모르겠군요.



호인: @전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느정도 그 기분은 알기에 군말없이 따릅니다



Kaming (GM): (물건을 사도 좋습니다)



호인: 흑흑

장비를 사고싶었어

저는 활력수를 사겠습니다



Kaming (GM): 남은영력결계는...



호인: 활력수 비싸.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나도 활력수 살래 얼마더라



Kaming (GM): 중앙의 하사시로 대교를 중심으로 펼쳐진 부분뿐...



호인: 400G'

입니다

그런고로 저는 2개 사겠습니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못사...



Kaming (GM): 비싸

나도 처음봤네

엄청비싸네



호인: 아니 뭐저리 비싸;;;



쿠사카베 린: (어차피 방어구 사기엔 돈이 부족하니 포션을 사자...)



Kaming (GM): 활력수 갓갓

그러면 씬아웃?



호인: 2700-->1900

네넴



Kaming (GM): =====

전원등장입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거절한다 물을떠오지)



호인: 혹시...소재합성 가능한가요...?

거절한달ㅋㅋㅋ



Kaming (GM): 다메다요



호인: ㅠㅠ



아라쉬: 넴



Kaming (GM): 소재합성은



호인: 다메데수웅



Kaming (GM): 잠시 물떠올동안
기다리정



호인: 넴

그런고로 저도 물떠오겠습니다



쿠사카베 린: (활력수 400G짜리 두 개 사줘야지)
전원등장이군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왔당)



Kaming (GM): 호짱이 없다!



호인: 저두 왔습니다



Kaming (GM): 왔다!

그러면,..

=====

여러분은 재빨리 하사시로 시의 영력결계의 연결점을 제거했습니다.

남은건 중앙기둥을 중심으로 펼쳐진 부분뿐...

하지만 거기서 샤를다레스를 찾기는 쉬웠습니다.



Kaming (GM): 오히려 오라는듯...

하사시로 파크랜드에서... 기운을 과시하고있습니다.

여러분은

파크랜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.

그리고.....여러분들은 목격하지요.

한때 즐거움이 가득한 이곳은...



Kaming (GM): 지금 지옥으로 바뀌었다는것을..

수많은 사람들이 혼을 빼앗겨..

영육의 모습이 여기저기...

보입니다.



쿠사카베 린: 린은 끔찍한 광경에 말을 잃습니다...



Kaming (GM): 그리고....

그 중심에

미소지으며 여러분을 보고있는

샤를 다레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영육이 머야?)



호인: (영혼 뺏긴 사람이요

(육신만 덩그러니 있다는뜻이겠네용



Kaming (GM): 영육: 영혼을 빼앗긴 인류나 멸망을 맞이한 초상존재는 자신의 육체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검은 콜타르 형태의 물질로 변화합니다. 이 물질을 <영육>이라고 부릅니다.

초상존재를 쓰러트리면 빼앗긴 영혼은 전부 해방되어 최근에 영육화한 자는 영혼을 빼앗기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되살아납니다. 하지만 기간이나 개인차에 의해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소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

호인: (πππ

(틀렸다

(데헷



Kaming (GM): 콜타르의 형체



쿠사카베 린: (영혼이 존재하는 세계 코와이)



호인: @그저 샤를과 눈을 맞추뿐입니다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꽤 재빠르네요. 여러분"



호인: "그것이 우리의 일이니 말이다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불신자들의 영혼을 얼마 모으지못했어요..아아 신에게 혼날꺼야.."



호인: "기사단도 떨어질때까지 떨어졌구나"

@그말에 표정을 구기며 말합니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....."

@호인의 말에 움찔 하는군요...

@사실, 언제나 이단을 멀해왔으니..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기사단..? 아아 제 소속이었죠..네 저는 기사단장....? 네 맞아요 저는 제 2기사단장"



호인: "하지만...알고있다 원해서 나락으로 떨어진것이 아니라는것을.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가 하는 행동 자체는...원래 행하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, 라고 생각해버렸거든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@웃으며 가웃거리는 샤를

"뭐 아무래도 좋아요"

"저는 신의 대행인..."

"그것만은 틀림없으니까"



호인: "캐롤은 구원을 원했다 난 그녀의 뜻을 존중해 그리 할것이다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캐롤...아 도중에 신을 저버린..아이"



호인: "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건 알고있다 어차피 그 검은 눈에는 뒤틀린 형상밖에 보이지 않겠지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구원?"

"하하..하하하하!"



호인: ".....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우습군요. 여러분이 저를 구원한다니..."

"신조차도 하지 못하는거시거늘..."

"어리석은 불신자들에게 가르쳐주도록하죠."

"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..."

그 와 동시에

샤를앞 양옆에..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검을 콜타르액체가

뭉치더니..

무언가 꾸물꾸물..

만들어져 갑니다.



데스 왕: "꾸...워어어..억!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아아, 갈데까지 갔구나.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신의 사자들과 함께...여러분을 구제해드리죠"

"아아...신이시여..저 불쌍한 어린양들을 구원하소서!"



호인: "...저자를 감싸고 있는 그림자를 거둬낼 시간이다 세실리아"

"분명 스스로가 무엇을 하는지조차 자각하고 있지 못할터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나타난것은...

엄청난 악취를 내뿜는..

시체와도 같은 용의 형상을 띤 무언가..

그것은 명백히 이상의 존재...



쿠사카베 린: "마지막 발버둥이라는 거네! 내버려둘 줄 알고!"



데스 왕: "크르르...꾸워어어어어어영!!!"

@질퍽질퍽



호인: (아앗...영력 몇이였더라ㅜㅜㅜ



Kaming (GM): 최종전투 시작입니다!

1224

호인

참

싹종료하고



호인: (감사해용!



Kaming (GM): 세실리아 영력회복 안했었네요.

깜박

1개 해주세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rolling 1d6

(4)

= 4



Kaming (GM): 3314

그러면 최종전투 시작입니다.

우선 식별타임

데스윙과

샤를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.



호인: 난이도는요...?



Kaming (GM): 샤를 16

데스윙 16



호인: ππ

지성이죠?



Kaming (GM): 네



호인: 그럼 영력 교환검

데스윙을 상대로 시전

rolling 2d6+3

(1 + 5)+3

= 9

퍼핑

4와 5를 교환하겠습니다



Kaming (GM): 네

다른분들은?



아라쉬: gma

흠...

데스윙을 상대로 한번



쿠사카베 린: 저는 샤를을



아라쉬: rolling 2d6+2

(1 + 6)+2

= 9

교환은 없네염



Kaming (GM): 싹빠이



아라쉬: 아

이거 13이면 성공하나요 혹시



Kaming (GM): 16



아라쉬: 아...

음...

그래도 1이랑 4

교환해놓을게요



Kaming (GM): 넵



아라쉬: 짝수 둘 홀수 둘로 맞춰냐엑쓰다



쿠사카베 린: rolling 2d6+8

(3 + 2)+8

= 13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지금 안된게 뭐있정)



쿠사카베 린: 3과 6 교환하면 16 맞나요?

왜 갑자기 암산이 안 되지



Kaming (GM): 둘다 안됐

네



쿠사카베 린: 3과 6 교환해서 16합니다!

샤를 성공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그럼 데스윙...



Kaming (GM): 성공



쿠사카베 린: 오 전격약점...

나의 무기가 빛날 순간이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지성이군요

rolling 2d6+9 데스윙식별

(6 + 1)+9

= 16



Kaming (GM): 상경

상경

성공

데스윙 정보공개

내버려두면 ^^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흥. 그 정도 권속밖에 못 부리는구나?"



Kaming (GM): 턴오더에 행동력 적어주시고

그러면

시작하겠습니다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신의 사도입니다."

=====

[개시]



쿠사카베 린: 전술보조 선언합니다

행동력 +1d

rolling 1d6

(5)

= 5

이번턴 행동력은 19



호인: (아까 방벽뿌수고 구슬 얻었나요?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넵



호인: 넵!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개시타이밍입니다.



호인: 5소모 결정장착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아 참고로

이치노스케 소환못하는데 괜춘?

전술보조

쓰면



쿠사카베 린: 아

나와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네요

고아앙 ㅠ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소환할꺼라고

당연히 생각해석ㅋㅋ

내놔



쿠사카베 린: 영문... 바친다....

-10...

커몬 베이비!



호인: ㅠㅠ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행동력은

원위치



쿠사카베 린: 쿣쿣

끝입니다!



호인: 호인의 호랑이 얼룩들이 잠시 빛났다가 다시 꺼집니 ㅏ

당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개성넘치는 동료들이네요. 세실리아"

@이치노스케와 호인을 바라보며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시끄러."



아라쉬: 개시에서

기세소실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넵



아라쉬: 1을 사용해서
사라집니다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영력 소모해주시고



호인: "그는 지금 사신의 그림자에 묶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힘든 상태다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훗 까칠한건 여전하시군요"
"자 그러면 심판을 시작해볼까요"
@지팡이를 빙그르



아라쉬: (저번 전투처럼 하나씩 전도 걸어서 없앨까요)
(누구부터 갈까요)



Kaming (GM): 샤를 턴



호인: "그리고 그 그림자를 거두기 위해서는 네가 필요하다 세실리아"
@그렇게 말하곤 샤를에게 시선을 돌립니다



쿠사카베 린: (오른쪽 용이 차폐할 거 같은 느낌적 느낌...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@컨센트레이트
"특수효과. 대상은 [능동판정]의 달성치와 [대미지 산출] 시의 [랭크]를 +1한다 "
@비전의 신언



쿠사카베 린: (으엑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특수효과. 대상은 [대미지산출]시 [랭크]에 +1한다. 이 《탈런트》는 [준비]를 소비하지 않습니다. "



호인: (엑ㅇ그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@샤를은 기도합니다.
"내 앞의 적을 멀하게 해주시옵소서!"
@일갈
"마법공격. 대상에게 [랭크:2]의 [마법대미지]를 준다. (저항[소멸]) "
거리 14
17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이였군
대상은
아라쉬!



호인: (더늘었잖아...!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샤를의 기도가...



쿠사카베 린: (우와아아앗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하나의 공격이 되어
아라쉬를 향해 빛이 되어 날아옵니다!
발동 20

마법공격



아라쉬: 와하이

저항 1

영문연소해도

피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



호인: 뭣하면 방호맨 같게요

데미지를 보고..



아라쉬: 그럼

회피 합니다..

영문 연소는...!

안해!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네



아라쉬: rolling 2d6+1

(1 + 1)+1

= 3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펌블



아라쉬: ???



호인: ??????????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영력 ->1

하나

제일높은수



호인: 자 일단 데미지 봅시다;;;;;;



아라쉬: 제일 높은수죠

6이 1로.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+

엘레멘탈 버스트

엘레멘탈 버스트 특수 전투지대 1체 같은 눈 데미지 산출 시에 사용. 사용자는 《엘레멘탈 버스트》 습득 시에 [속성] (→p177) 하나를 지정한다. (이후 지정된 [속성]은 [기원속성A]라 부른다) 대상은 [데미지 산출] 시에 [기원속성A]를 부여하여, 또한 [랭크]를 +1한다. (대상은 [기원속성A]의 부여를 거부가능) 이 《탈런트》는 1턴 중 1회만 사용 가능하다.

오버랩 상시 사용자 사용자 없음 "상시효과. 대상은 [기원속성A]를 부여한 [데미지 산출] 시에 [랭크]를 +1한다. "

엘레멘탈 마스터 상시 사용자 사용자 없음 상시효과. 대상은 《엘레멘탈 버스트》를 1턴 중 2회까지 사용 가능하게 된다. 또한 대상은 [기원속성A]가 부여된 [데미지 산출] 시에 +「사용자의 임의의 【주능력치】」의 수정을 받는다. 이 《탈런트》의 효과는 [무기공격]에 적용되지 않는다.



호인: 카미가카리 반드시 죽인다맨...



쿠사카베 린: 앓 아아...

스텔라하기 전에 스텔라 되어버렸어

 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일갈2랭크 컨센1랭크 비전1랭크 엘레멘탈 1랭크 오버랩1랭크

 아라쉬: 얼마나 살의가 높은거얏
맞고 죽고 일어나는게
나을듯

 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6랭크

rolling 6d6+26

(6 + 3 + 4 + 2 + 2 + 3)+26

= 46

46마법데미지

 아라쉬: 어라
안죽나
결계2로

 호인: 방호가나요?

 아라쉬: 44데미지
안죽네요
안와도 될듯

 호인: 념

 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참고로 섬광입니다 속성은
오리진파워 상시 사용자 사용자 없음 "상시효과. 대상은 《엘레멘트 버스트》와 [타이밍: 특수/코스트: n]의 《탤런트》를 [코스트: 홀]으로도 사용 가능하게 된다."

 Kaming (GM): 거대한 빛이
아라쉬를 강타합니다!

 쿠사카베 린: (기도의 힘으로 섬광빔이라니... 이래서 교회는!)

 호인: (마관광살포!!)

 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나의 기도는 닿았다...아아 신이시여.."

 호인: "아라쉬 괜찮은가!?"

 아라쉬: "아아. 괜찮아."
"신에 대한 기도인가. 나도 생각하는 바가 많지만."

 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이어지는 언령 특수 사용자 사용자 3 특수효과. 대상의 [데미지산출] 후 사용. 대상은 [타이밍:공격/코스트:n]의 《탤런트》1개를 [코스트]를 소비한 것으로 취급하여 사용한다. 이 《탤런트》는 한 턴(씬)에 1회밖에 사용 할 수 없다.

 쿠사카베 린: "무, 무슨 빛이...!" @잠깐 눈앞이 새하얘졌다

 아라쉬: "저 기도가 신에게 닿을 일은, 없다고 생각하는걸."

-

 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신이시여...다시한번.."

쿠사카베 린: (아아앗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@중얼중얼
대상은 이치노스케



쿠사카베 린: 왓더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@엘레멘탈 버스트



호인: 왓..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전과 동일



쿠사카베 린: 저항자동실패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rolling 6d6+26

(2 + 5 + 5 + 3 + 2 + 2)+26

= 45

45마템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저거 루드빅이자나?)



쿠사카베 린: 결계 3이니까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(찌찌빔)



쿠사카베 린: 42데미지?



호인: (사퍼 아직도 서비스하나요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(유두빅)



쿠사카베 린: 1남기고 살았군요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연속행동 상시 사용자 사용자 없음 "상시효과. 대상은 [행동자]가 될 때마다 [타이밍: 공격]을 +1회 얻는다. 이 《탈런트》는 중복하여 습득 가능하다. 이 《탈런트》에 의해 상승하는 [타이밍: 공격]의 회수는 최대 +3까지만 된다. "



이치노스케: [까아앙] @불타는 팻말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이치노스케에게
한번더 빛이 강타합니다.



쿠사카베 린: (얼마나 더 공격할 생각이야!)
(더럽다 더러워 보스가카리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일갈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괴물인형을 절대로 죽이겠다는 의지)



이치노스케: [까아악] @폭산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아아 신이시여..감사합니다.
@기도를 마칩니다.



쿠사카베 린: "이, 이치노스케가!" @크

Kaming (GM): 다음은

아라쉬와 호인이군요!



호인: 뭘해야하지(?)
생각해보니 딱히 할게음..



아라쉬: 그럼
용부터
없앨까요?



호인: 아라쉬 먼저!
해주세요



아라쉬: 빨리
죽이긴 해야겠네
그럼 준비에서
그림자 부수기
4,5를 써서
이곳으로



아라쉬: 데스윙에게 전도 부여



데스 윙: "구어어어억!!"
@첼푸터억!
질퍽한 무언가가
떨어지는듯한
소리를 내며
주저앉습니다.



아라쉬: 공격에서 영웅혼의 일격
물리공격 랭크 +1
대상은 전도한 데스윙
기세소실의 소멸 효과는 유지되는 상태인가요?



데스 윙: 준비를 소모했으니
은신은 풀립니다.



아라쉬: 히에-
그럼
고정치 16인가...
영문 하나 태울게요



데스 윙: 어디보ㅓ자
전도니까
-2해서
14



아라쉬: 6이상 필요



데스 윙: 회피네여



아라쉬: 인가...
70퍼...

으으음...

고민



데스 왕: @질러 소근소근



호인: (악마의 유혹이다



아라쉬: 아니 70퍼라면 나올 수 있어 아까 펌블이었으니까



데스 왕: ^^



아라쉬: rolling 2d6+8

(4 + 6)+8

= 18



데스 왕: 스게

명중입니다.

데미지 주시죠



아라쉬: rolling 2d6*2+21

(4 + 3)*2+21

= 35

8+21

29데미지



데스 왕: 뭔가 다른거 안부운 평범한 평타셨군!

장갑3



아라쉬: 영웅혼의 일격+양식이 되야 +20이 들어가서<



데스 왕: 16데미지

26

"꾸워어어어영!!"

호짱노턴



쿠사카베 린: (반피를 흑 깎았다)



데스 왕: 생긴것만 그렇지



악동양반: 아슬아슬하게 되겠군...



데스 왕: 안싸요

(?)

(성수 부르면 좋아죽음())



악동양반: 그래도 31이나 남았군



데스 왕: 악동님으로 돌아오셨어



호인: 앓 실수



데스 윈: 행동해주시죠



호인: 아슬아슬하게 방호범위가 닿는데까지 이동해야지
아이템 쓰고 가도 되나요?



데스 윈: 아이템쓰면
준비소모



호인: 준비 소모구나
흠...



데스 윈: 공격때도 아이템 사용가능하긴함



호인: 피가좀 아슬아슬해서요
그럼일단
요기로 이동하고
성수사용



데스 윈: "용도: 그 외 가격: 50G

효과: 거룩히 성별된 청결한 물. [거리: 사용자/대상: 사용자]로서 사용. 대상은 그 턴의 [타이밍: 종료] 후까지 [종별: 불사]에 대해 [데미지 산출] 시에 [랭크]를 +1한다"

아이템사용이라
준비나 공격소모데수



호인: 호에에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노래가 사라졌다)



호인: 그럼 그냥 사용 안하고 두까패도 되나요



데스 윈: 억 노래가 왜 멈췄지
네



호인: 준비로 이동해버렸엉
영력 1 소모



데스 윈: 됐다



호인: 영위격



데스 윈: 넵
물리공격. 사용자는 [데미지 산출] 시 [랭크]에 +1 한다



호인: rolling 2d6+9 명중굴

(2 + 3)+9

= 14

억
실패



데스 윈: 성공



아라쉬: 전도



호인: 아 전도!



데스 윙: 전도 회피-2



아라쉬: 신의 사자라면
전도하세요



데스 윙: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



호인: rolling 2d6+18

(6 + 1)+18

= 25

12+18

30



데스 윙: 6x2+18?

장갑 3

27데미지



호인: 데스윙에게
죽빵을 날립니다



데스 윙: "꾸아어어억!!"
질퍽한 타격감입니다.
마치 시체를 때리는듯한
턱이 날라가는군요



호인: @조용히 손을 톱니다
디러



데스 윙: 하지만 서있습니다.



아라쉬: 1남은거 아닌가? ㅋㅋㅋㅋ



데스 윙: 4남



쿠사카베 린: 27 26....



데스 윙: 다음
이치노스케가 없는
린이군요



쿠사카베 린: 콧-소-오
준비로 이치노스케에에에
영문은 이제 -13



데스 윙: 계약소환은
개시를 소모해
한다고 적혀있더군요



쿠사카베 린: ...



호인: 흠터레스팅...



쿠사카베 린: 죽인다앗

그럼 일단



데스 왕: "상시효과. 대상은 《계약소환》취득 시, [마수,괴충,식물,기계] 중 1종류를 선택한다. 대상은 [영문]3 [개시]1회를 소비하여 1씬 동안 [Lv=대상의 세계간접LV이하], [종별=사용자가 선택한 1종]의 [모노노케]1체를 (이하 [모노노케]가 아닌 [계약신수]라 부름) [등장] 시키고 마음대로 조종한다

"

대상은 [영문]3 [개시]1회를 소비하여



쿠사카베 린: 흑흑

비전의 신언

준비는 소비되지 않고

랭크 +1



데스 왕: 넵



쿠사카베 린: 데미지, 데미지

1을 소모합니당



데스 왕: 압

이동은 안하시죠/



쿠사카베 린: 간이이동으로

오른쪽으로 한칸

공격타이밍이군요

평타날립니당

거리는 10메스 랭크2 전격 마법공격

대상은 오른쪽 용



쿠사카베 린: 다이스로올

rolling 2d6+8

(6 + 2)+8

= 16

저항이 17이군요



데스 왕: 네



쿠사카베 린: 2와 4를 바꿔서



데스 왕: 성공



쿠사카베 린: 18로 하겠습니다



데스 왕: 씹8로 성공



쿠사카베 린: 데미지를~!



데스 왕: 다이스를~

쿠사카베 린: rolling 2d6*3+12



$$(5 + 6) * 3 + 12$$

= 45

30입네요



데스 왕: 네

마무리

"꾸워어어어영!"



쿠사카베 린: 원거리 스텐건은 강했다!

@지지지지직



데스 왕: 형체를 서서히 잃더니

검은 콜타르 액체가 되어

사라집니다.

@질퍼어억

다음 데스왕 턴이군요

"꾸우..꾸우우워어어억!"



데스 왕: 《역병선풍》: 마법공격/전투지대/범위 대상에게 [속성: 마독], 2d+25의 마법데미지 [저항:반감]

대상 세실리아

마법공격

발동 17

데스 왕이 날개짓하자

역한 냄새와 함께



데스 왕: 역병의 저주가

세실리아를 향해 날라갑니다!



호인: 악...범위.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저항 17....



쿠사카베 린: 혹시몰라 옆으로 한칸 떨어졌.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아니 내 저항은 6...



호인: ...?



데스 왕: ㄱㅏ

린도 때리는건뎡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영문연소 하쵸



쿠사카베 린: 저 사악한 GM을 보라.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호인을 태우고

@3개 추가한다



호인: @화르륵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rolling 5d6+6 저항해라

$$(6 + 5 + 1 + 5 + 5) + 6 = 28$$



데스 왕: 그리 안아플텐데 한대라도 안맞겠다는 의지가 보인다!
성공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rolling 3d6

$$(6 + 2 + 3) = 11$$



데스 왕: rolling 2d6+25

$$(1 + 6) + 25 = 32$$

32데미지

반감

결계까고 반감해주세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신령악기 발동 능력 +5
(결계+5)



데스 왕: 넵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해서 결계 14



데스 왕: 엡ㅋㅋ
결계왜저리 높악ㅋ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$18/2 = 9$



데스 왕: 9데미지
《살육》: 상시/사용자 대상은 [타이밍: 공격]을 +1번 할 수 있다.
"꾸워어어억!"
데스왕이
몸을 구부리더니
파바바박!



데스 왕: 《빠다귀 투척》: 물리공격/10마스/2체 대상에게 [속성: 마독/형태: 사격], 3d+23의 물리데미지.
하고 빠다귀들이
빠른속도로 날아갑니다.



호인: 하일 하이드라(?)



데스 왕: 대상은 세실리아 아라쉬
"꾸어어억!"
세실리아 입장에서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아..)



호인: 도시요오오오ㅍㅍ



쿠사카베 린: (앗아아)



호인: 둘중 누구를 커버해야하지



데스 윙: 역풍을 건넸더니
갑자기 눈앞에



호인: 는 세실리아 커버?



데스 윙: 빠다귀가 보인거나 마찬가지로겠네요



쿠사카베 린: (범위탱인 이치노스케를 날려버린 마스터어어)
(ㅍㅍ)



데스 윙: 명중 15
(^^)



호인: 일단 두분 회피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아라쉬 피해보시죠)



데스 윙: 아라쉬 민첩이 높아서 피할꺼얌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rolling 2d6+5 회피

(5 + 5)+5

= 15



아라쉬: 후이
그럼



호인: 아 세실리아 아깝다



데스 윙: 능동우선
회피실패



아라쉬: 7필요인가
음...

rolling 2d6+8

(2 + 5)+8

= 15

가아아악



호인: ????



데스 윙: 능동우선 회피실패



호인: 아니...



데스 윈: 두분다



아라쉬: 영문연호



데스 윈: 주작할 다이스가
없으시군요



아라쉬: 할걸
7이라고 방심했나..



호인: 잠깐 누구를
지켜야하지



데스 윈: 일단
데미지는



아라쉬: 저 영문 많으니
저는 한번
쓰러지고



데스 윈: rolling 3d6+23

(6 + 3 + 2)+23

= 34

34물리데미지



아라쉬: 영문으로 부활할게요



호인: 아님 세실리아가 부활시켜줄수도 있겠군요
세실리아 한번 버틸수 인에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제가 부활하면됨)



호인: 있네요
9템에
34라
아슬아슬하게 살아남으십니다



아라쉬: 장갑이 4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데미지 34?



데스 윈: ㅇ



아라쉬: 니까 30데미지



데스 윈: 야캄
데스윈 넘나 약한것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장갑 2 32템



호인: 방호 코스트2소모
이렇게 이동



데스 왕: 네

그러면

호인 34 세실리아 34

장갑 처리해주시고

데미지 받으시죠!



호인: 아라쉬에게 날아오는 뼈다구들을 대신 맞습니다

장갑 16

18데미



데스 왕: @퍼버버벅!

뼈다귀들이

호인과

세실리아를 강타합니다!

"크르르르..그워어어!"



호인: @이악물고 쏟아지는 뼈다구들을 힘겹게 쳐내거나 뿔아냅니다



데스 왕: 다음은 세실리아턴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아프...잖아...."



데스 왕: 만신창이가된 세실리아!

역한냄새가

그런 세실리아를 더 힘들게합니다.



호인: @뒤늦게 세실리아를 봤으나 이미 때는 늦었군요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상처 투성이가 되어서, 머리가 땡땡...



호인: "크윽..!!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활력수 빨쥬...



Kaming (GM): 준비소모!

활력수 뺏다쥬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간이이동 아래로 한칸



Kaming (GM): 도망치다니! 비겁하다!

정정당당히(?) 드래곤과 승부해라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고위치료, 대상은 호인

rolling 2d6+9

(3 + 4)+9

= 16



Kaming (GM): 네

성공

힐량굴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rolling 2d6*3+15

(5 + 6) * 3 + 15

= 48



호인: 33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33회복



호인: 오 좋아!! 힘이 넘쳐난다!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호오..."



호인: "크아아!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뭐야, 그 표정은."



쿠사카베 린: (멋정..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샤를에게 찌릿찌릿 노려보는 시선을 던집니다

"날 상대하려면...이런 건 각오하셨어야지!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아뇨...단지 그리운 뭔가가 느껴졌을 뿐입니다. 이런이런 실수했네요.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다니 신의 대행자로서 있어서는 안될일입니다."

"아직 심판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."



Kaming (GM): 종료타이밍

영력회복해주시고.



호인: rolling 3d6

(3 + 6 + 2)

= 11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rolling 1d6

(1)

= 1



호인: 무난하군...



데스 윙: "꾸..꾸어어..꾸에역!"

《신체개조》: 종료/사용자 대상은 【생명력】을 10[회복]하고, 1전투 중, 데미지산출시 +1d 의 수정을 받는다. 이 효과는 누적된다(최대 +5d).

@철푸덕...

@질퍽..

점점 쿨타르 액체가

모아져갑니다.



데스 윙: 그 모습은

더욱더 흥측하게 변해가죠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강해지는데, 점점..."



데스 윙: 아라쉬회복하시죠

"꾸어어어억!"

@포효



호인: "더 커지기전에 처리해야겠구나!"



데스 윙: 이대로 내버려두면 점점 강해질꺼같군요.

아라쉬의 영압이

사라졌다



호인: @기세소실



Kaming (GM): @시자소새!



아라쉬: 음



Kaming (GM): 살아났다



아라쉬: rolling 4d6

(4 + 2 + 5 + 3)

= 14



Kaming (GM): 역시 시자소새!



아라쉬: 2345



Kaming (GM): ----

2R

[개시]



아라쉬: 기세소실 하면 역으로

노려지는건가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전투력증강...



Kaming (GM): 은밀은

마법공격은 못막으니까염



쿠사카베 린: 개시환수소환인데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딱 닿는군



쿠사카베 린: 또 날아올 거 같아.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아라쉬에게 한다

@33 써서, 물리또는 마법랭크+1



쿠사카베 린: 일단 개시써서 소환할게요

뜨와아아앗!



Kaming (GM): 풀피로

-  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흐음...신께서도 슬퍼하실겁니다."
"저러한 생물이 존재하다니.."
@이치노스케를 바라보며
"아아 신의 분노가 느껴져옵니다."
-  쿠사카베 린: "불신지옥 팻말들고 나날 법한 아저씨네"
@베에에에에
@메에에에러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아, 그건 동감..."
@음...미적 감각은 고장나지 않았구나...
-  쿠사카베 린: "아아 신의 분노가 느껴져옵니다....라니"
"스스로 말하고도 부끄럽지 않나요"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나도 신인걸."
"저거 볼때마다 기분나빠."
@술직하다, 이 토끼신
-  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부끄럽다니요. 신을 믿는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. 저는"
"아아 신이시여! 신을 칭송하는 이 마음을 모르는 어리석고 우매한 자에게 천벌을..!"
샤를 다레스 턴
-  쿠사카베 린: "앗 방금 신에게서 카톡 왔어요... 곤란하다는데요!" @눈까고 메에러
-  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도발당했다
공격한다!
-  호인: 으음!!
-  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준비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(인형을 죽여라)
-  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간이이동
@비전의 신언
랭크+1
@컨센트레이트
-  쿠사카베 린: (앗 아까 종료때 영기울을 안 썼군)
-  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랭크+1
-  쿠사카베 린: (다음부터 챙겨야지)
-  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공격
@일갈
대상 이치노스케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(근데 나 계속 까먹고 있는데)
-  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+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(나도 영력유전 있는데 ㅋㅋ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엘레멘탈 버스트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매크로 만들어야하나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rolling 6d6+26

(3 + 2 + 5 + 6 + 4 + 5)+26

= 51

51데미지

키에로



쿠사카베 린: 가아악



호인: 강하다...!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이치노스케를 다시 태워버립니다.



호인: 이치노스케 활약도 못하고 계속 타죽네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다음은....더러운 입으로 저와 저의 신을 모독한 당신을.."

@린에게

일갈!



쿠사카베 린: 가아악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갈!!!

갈!!!!

@엘레멘탈버스트



쿠사카베 린: 저항저항저항이다앗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발동 20

입니다.



쿠사카베 린: 아 저항 소멸이던가요?

아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네

저항소멸

일갈은



쿠사카베 린: 크리뜨지 않는 이상 무리네요



호인: 앓...아아...



쿠사카베 린: 영문연소합니다아

아 잠깐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넵



쿠사카베 린: 인연남았나

체크!

다 다행이야



호인: 건담이랑 가슴은
대체 누구야



쿠사카베 린: 남아있어...
지난번 보스 둘이요



호인: 아..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ㅋ
보르스랑 로즈블루군



호인: 보른이요ㅠㅠ



쿠사카베 린: 호인을 타이터스(음음)해서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보른



쿠사카베 린: 2d 추가합니다!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왜자꾸
보르스라고하지
ㅇㅂㅈㅇㅂㅈ
넵



쿠사카베 린: 저항률!

rolling 4d6+6

(6 + 4 + 5 + 4)+6

= 25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브루스)



호인: (타이ㅓ...음음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저항 성공



쿠사카베 린: "팅겨냈다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아아..이 얼마나 슬픈....저의 기도가 부족한 탓이군요"



쿠사카베 린: "에엠티소녀의 피부탄력에 튕겨나갈 기도 파워~?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@더욱더 기도한다!



쿠사카베 린: "부끄럽지 않나요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@이어지는 언령
@일갈



쿠사카베 린: (야메떼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대상 린



호인: ..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엘레멘탈 버스트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매를 벌어...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다썼으니



호인: 방호맨 출격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그냥 일갈깡땀입니다.



호인: 코스트 2소모

일단 땀굴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일단

저항부터



쿠사카베 린: 일단 데미지보고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하시죠
린



호인: 네 저항이 먼저



쿠사카베 린: 흥!

발동이 여전히 20...

불타라 셋쌍의 인연

2d+!

rolling 4d6+6

(5 + 1 + 2 + 6)+6

= 20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능동우선



호인: 앓...아아...



쿠사카베 린: 1과 2를 체인지



호인: 나뉘.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네 저항 성공



쿠사카베 린: 합쳐서 영문소비하겠습니당

rolling 4d6

(1 + 5 + 1 + 4)

= 11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11소모



쿠사카베 린: 나쁘지 않군...



아라쉬: 린의 영문이

ㄷ ㄷ ㄷ



쿠사카베 린: 게이지가 마이너스로 100%
히잉ㄱ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그런데 리포님
물리초월 3번 넘게 쓴거같은데



쿠사카베 린: 옛?



호인: 아?



쿠사카베 린: 어라 벌써?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저번 전투때에도 쓰지않으셨었나?



호인: 생명연소에 있는 인연을
제거하셨어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인연은



쿠사카베 린: 저번전투때 어라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순서대로
아니
순서대로레



쿠사카베 린: 어라앗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쓴 령문연소 효과에있는
감정을
쓰셔야하는데



쿠사카베 린: 저렇게 지워놔버렸다...
무의식중에 로이스마냥 밑에서부터 지웠네요
억옥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느낌상 물리초월 5번은 하신것같은데 저번이랑 합쳐서



호인: (답크를 너무 많이 하셧...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생명연소는
한번도 안쓰셧고
안번쓰셧나?
개념파괴도 안쓰셧으니
쓰신 감정 전부 물리초월이라는 소리땡



쿠사카베 린: 억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지금보니



쿠사카베 린: ;ㅁ;



호인: 'ㅁ'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이번것만 롤백하죠



쿠사카베 린: 넵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저번것까지는..어쩔수 없으니
대신 다시 차례대로
지워주세요.



쿠사카베 린: ππ 넵
롤미숙이 아직도.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리롤 하시구
영문소비도
다시
2d빼시고



쿠사카베 린: 넵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롤롤



쿠사카베 린: rolling 2d6

(4 + 4)

= 8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저항은 실패



호인: 앗
음...어찌지 잘만하면
데스윙 호인이랑 아라쉬로



쿠사카베 린: 루드빅 궁맞고 죽는 모양새가 됐다



호인: 끝낼수있을거같은데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《파멸의 신언》

타이밍:특수 거리:전투지대

대상:1체 코스트:없음

개요:신의 말씀을 발현해 상대를 파멸시킨다.

효과:대미지 산출 시에 사용. 대상이 일반인이었을 경우 [효과 종별 :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.]로 하고, 일반인에게 [상태변화: 기절전투불능사망]중 한 가지를 얻는다. 대상이 초상존재일 경우 대상은 [대미지 산출]시에 1d×[LV] (최대5)의 수정을 받는다. 사용자는 이 《탈런트》를 사용 할 때마다 【생명력】을 10소비한다. 이 《탈런트》는 1턴 중 1회만 사용할 수 있다.



호인: 할수없군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1d6

rolling 1d6

(2)

= 2

2x5

데미지 10추가

쿠사카베 린: 히이익



빡친 신부님 무서워



호인: 데미지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rolling 4d6+26

(2 + 3 + 4 + 6)+26

= 41

41마법데미지



쿠사카베 린: 신부님 앞에서 진화론 얘기해도 저것보단 덜 화낼 거 같아 ㄷ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생명력 10 감소

"천벌..!"



호인: 2소모 방호맨 출격



쿠사카베 린: 무리이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하늘에서 빛이 떨어집니다!



호인: 이동은 이렇게



쿠사카베 린: "빛과 함께 엔딩이라니 무리잇!" @눈을 질끈 감는다



호인: @뛰쳐나가 린을 밀쳐내고 빛을 받아냅니다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쿠구우웅!!!



호인: 결계 7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치지지지직!

호인은 빛의 타는듯한 느낌을 받습니다!



호인: "으으아아아악!!"

44데미지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?

41-7



호인: 데미지 10추가라고 하셔서요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추가한



호인: 아 저게 추가한

거군요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데미지에영

넹



호인: 그럼 38데미지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엘레멘탈 버스트가없어서

야캄

ㅌㅌ



호인: @치이이이이이익
@몸에서 연기가 납니다
하지만 쓰러지지 않아욧!



쿠사카베 린: "호, 호짱!" @눈물



호인: "하아...하아.."



쿠사카베 린: (프로포콜 스킬은 작작 써야겠다...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자기희생..."
다음



쿠사카베 린: "날 지켜주느라..." @슬픔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아라쉬
호인
@살짝 복잡 미묘한 눈으로
호인을 바라봅니다.



Kaming (GM): 두분중 누가먼저?



호인: "슬퍼하지 말거라 신살자의 의무를 진 자는 으레 이리 되는것이야"
@린에게 시선은 주지않은채로 말합니다
아라쉬 먼저 허쉴?
저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 뭔가 할수가 없습니다



아라쉬: 그렇네요
그럼 저부터할게요
2,3을 사용해서 준비에서
그림자 부수기



호인: 오 데스윙한테 전진할수 있구나



아라쉬: 슬라이드 이동-!



Kaming (GM): 가악
전도맨이다



아라쉬: 전도부여!



호인: 전도맨이 이걸!



데스 윙: "꾸워어어!?"
@철푸더억!
데스 윙의 질퍽한 몸이 무너집니다.



아라쉬: 영식+영웅혼의 일격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"뭔가 새로운 기술을 많이 얻었네..."



데스 윙: 온다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: @혼자 중얼중얼...



호인: 데스윙 죽인다!



데스 왕: 회피 15



아라쉬: rolling 2d6+8

(6 + 4)+8

= 18

허억 허억



데스 왕: 명중



아라쉬: 영문을 쓰지 않아도 낼 수 있단걸
보여주마
아 고정치 9구나



호인: 스바라시



쿠사카베 린: (슛고이)



아라쉬: rolling 2d6*2+31

(1 + 1)*2+31

= 35

켄



데스 왕: 호오



호인: 게객



데스 왕: 1x2



아라쉬: 37데미지



데스 왕: 영력 지워주시구



아라쉬: 영문 다써서
영력 다써서
공격한거라
교환이 안된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33...



데스 왕: 장갑3



아라쉬: 한조 같은 움직임



호인: 한조같은ㅋㅋㅋㅋㅋㅋ



데스 왕: ㅋㅋㅋㅋ
어떤움직임이악ㅋ
"꾸어어억어억!!"



쿠사카베 린: 메뚜기...



데스 왕: 질퍽한
살점들이
떨어져나갑니다.
호짱턴



호인: 힘내서 전투인동
이동
다음 영위격(3) 천지공(6)
영문연소 아라쉬(+1d)



데스 왕: 네



호인: rolling 3d6+9

(2 + 5 + 2)+9
= 18



데스 왕: 명중
데미지!



호인: rolling 1d6 령문

(3)
= 3

rolling 2d6+18

(4 + 6)+18
= 28

18+18

36



데스 왕: 사망!



호인: @데스왕의 턱을 차버립니다!



데스 왕: "꾸웨에에이이이에이익!"



호인: "흐읍!!!"



데스 왕: @철푸덕!
몸이 무너져내려
콜타르로 돌아갑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좋아, 이제 너 하나 남았네?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아아 이 얼마나 슬픈일이란 말입니까..
"결국 제 손으로 여러분들을 신의 곁으로 보내드려야겠군요"
다음

리포링



쿠사카베 린: 가아악

소환사에게서 소환수를 일방적으로 빼앗다니

이게 현실입니까! OTL



호인: 고통받는 린..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(그것만으로 1인분 충분히 하고계시는중임)



쿠사카베 린: 능물...

준비 비전의 신언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(탱킹하고있다는거니까?)



쿠사카베 린: 1을 소비해서 공격+1랭크

준비소모없어고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(다만 이제 그이상 령문쓰시면 현세에 못남아있어)



쿠사카베 린: 활력수 하나 써서 풀피할게요 (준비소비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네



쿠사카베 린: 공격 타이밍

평타쓸게요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무기공격이군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캐릭을 지우면 됨)



쿠사카베 린: 무기공격!

대상은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저항 12



쿠사카베 린: 신은 촌데레시거든 남자

발동롤!

rolling 2d6+8

(5 + 1)+8

= 14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명중

데미지주시죠



쿠사카베 린: rolling 2d6*3+12

(4 + 2)*3+12

= 30

24입니다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결계 7



쿠사카베 린: 아 잠깐
약점 전격이었네요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호오



쿠사카베 린: 샤를..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4x4
4템추가군



쿠사카베 린: 28...
약점이다앗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21데미지
받습니다.



호인: 빠지지지지



쿠사카베 린: 전기비임을 때려박습니다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웃...따갑군요"



쿠사카베 린: "이게 진짜 지지직 빔이다!"
@건전지 교체중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하지만 겨우 그정도"
@아직 멀쩡해보입니다.
다음
세실리아짬응
하왈



호인: 히익.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흠...
@간이이동 아래로 한칸
@고위치유 대상은 호인...
@1 소비하고

rolling 2d6+9

(6 + 4)+9

= 19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도망친다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rolling 3d6+15

(5 + 6 + 4)+15

= 30



호인: 토끼장 니계롱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이게아냐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3d6?



호인: 띠용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$\text{rolling } 2d6*3+15$

(2 + 5) * 3 + 15

= 36

30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30



호인: 호인 무한동력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ㄹㅇ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샤를을 차갑게 노려보면서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....."

@마주바라보쵸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십자가를 잡고 가볍게 기도문을 외어서 호인을 회복시킵니다.

"뭐, 불만이야?"

@찌릿..강한 적의...



호인: @회복되면 다시 자세를 바로잡습니다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신을 버린자가 어찌 신의 기도를 입에 담으시는거죠?"



호인: "아직 신이 그녀를 지켜보고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지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....."

[종료]

타이밍

영력회복!

남은건 샤를 뿐이네요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$\text{rolling } 3d6$

(4 + 5 + 2)

= 11



호인: $\text{rolling } 3d6$

(5 + 5 + 2)

= 12



아라쉬: $\text{rolling } 4d6$

$$(4 + 2 + 1 + 2)$$

$$= 9$$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쉽다 쉬워(?)



호인: 디요웅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오오이
린
영력회복!



호인: 린...?



쿠사카베 린: 넵

rolling 2d6 !

$$(2 + 5)$$

$$= 7$$

미묘오



Kaming (GM): ----

3R

개시!



호인: 개시 수마변신(2, 2)



Kaming (GM): 하익



쿠사카베 린: 앓 또 영기울 깜박했다



호인: "우오오오!!"



Kaming (GM): 드디어?



호인.: "크아아아!!"



Kaming (GM): 호짱 진화!

호인



쿠사카베 린: (호인 이번엔 늦게 변신했군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아 영력유전 또까먹었네 이거 빼버릴까 ——)



호인.: (방호 쓰느라
(코스트가 부족했습니다



Kaming (GM): ㅋㅋㅋㅋㅋㅋ



쿠사카베 린: (4가 탕킹하려면 필요해서 저는 빼기 고민되네요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영력유전은 남한테 주는거라)
(흐음.)



쿠사카베 린: 개시로 잇치노스케엿...



Kaming (GM): 령문 -19



쿠사카베 린: 부활만 반복하는 덧없는 인조생명



호인.: (아 그럼 회복효과 제가 받는대로
(제가 말씀드릴게요



아라쉬: 나는 여기있다!
개시라도 숨지 않는다!



Kaming (GM):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



이치노스케: [나는 지금 여기 살아있어!]



호인.: 엿ㅋㅋㅋ



이치노스케: [여기에!]



아라쉬: (숨으면 더 아파짐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그러면
샤를턴



호인.: 3회 행동이라니 이놈..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간이이동
@비전의 신언
@컨센트레이트
@공격 일갈
@대상 호인!



호인.: ;;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발동 20
"거슬러...."



호인.: 이거 자동실패인데
일단 해보겠습니다



쿠사카베 린: 뼈까지 씹어먹어주겠다는 집착이 보입니다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신을 버렸는데..신에게 사랑받는다고?"
@뿌득



쿠사카베 린: 위험하다 싶으면 대신 받아주는 잇짱
이 있습니다



호인.: rolling 2d6+2

(3 + 6)+2

= 11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@엘레멘탈 버스트!



쿠사카베 린: 데미지는 얼마났!



호인.: 저항의 결정 사용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《파멸의 신언》

타이밍:특수 거리:전투지대

대상:1체 코스트:없음

개요:신의 말씀을 발현해 상대를 파멸시킨다.

효과:데미지 산출 시에 사용. 대상이 일반인이었을 경우 [효과 종별 :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.]로 하고, 일반인에게 [상태변화: 기절전투불능사망]중 한 가지를 얻는다. 대상이 초상존재일 경우 대상은 [데미지 산출]시에 1d×[LV] (최대5)의 수정을 받는다. 사용자는 이 《탈런트》를 사용 할 때마다 【생명력】을 10소비한다. 이 《탈런트》는 1턴 중 1회만 사용할 수 있다.



호인.: 저항의 결정: 데미지 적용시 사용. 자신이 받는 마법데미지를 [반감]한다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데미지 갑니다.



호인.: 넵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갈데까지 가서 교리조차 잊었구나?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rolling 1d6

(2)

= 2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샤를의 말에는 피식 웃네요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낮아

10추뎀

적용해서



호인.: 하아;;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rolling 6d6+36

(2 + 2 + 1 + 4 + 1 + 6)+36

= 52

52데미지



호인.: 반감 26

결계 7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@일갈 한번더



호인.: 19뎀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샤를은

파멸신언 효과로

10데미지

"아니야.... 신은..신을 믿는자만이.."

@샤를의 감정에 요동치듯

여기저기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빛이 흩뿌려집니다.

그중에 호인에게 다시한번 빛이 쏟아지죠



호인.: "버렸다인가...그런 발언을 입에 둔 순간 이미 신의 사자라고는 볼수 없겠군"

@받아낼 준비를 합니다!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저항하시죠



호인.: rolling 2d6+3

(2 + 5)+3

= 10

짜

ㅂ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@엘레멘탈 버스트

rolling 6d6+26

(6 + 1 + 3 + 2 + 2 + 6)+26

= 46



호인.: 고만해 ㅠㅠ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46마법데미지



호인.: 악

기절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소멸해라!"



호인.: 이걸 정말 아프다!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소멸해!"

@파아아앗!



호인.: "으으윽!!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빛이 당신을 태웁니다



호인.: @푸쉬이이이이익!!!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@이어지는 언령

@대상 세실리아



쿠사카베 린: 히이익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@일갈

발동 20



쿠사카베 린: 보스 너무 무섭다..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갈!

그리고

호인을 태운빛이

세실리아를 향합니다!



쿠사카베 린: (방호하기 거리가 멀면 이치노스케가 있으니당)



호인.: 아니요

이미 기절했습니다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신의 사랑은 내꺼야..!"



쿠사카베 린: 앓아아

기절글자를 못 봤군

(신의 사랑은 내거라니)



호인.: 세실리아 아직 령문 안정권이죠?



쿠사카베 린: (이 얀데레남...)



호인.: 생명연소 안써도 될까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우리 모두의 것이겠지, 아버님의 사랑은...!"

(안정권인데)

(이치노스케 태울거인지 어쩔건지 확답을)



쿠사카베 린: 흠

그럼 태우지 않고!

딜, 딜을 하자!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저항해주세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rolling 2d6+6

(5 + 2)+6

= 13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퍼억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죽고 일어나야지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rolling 4d6+16

(6 + 1 + 3 + 3)+16

= 29

29데미지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마뎀?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네

마뎀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z.zz.

@신령악기 발동



호인.: (호인한테 힘을 모조리 쏟아부었다고 한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결계 14

15덤행존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....!"

빛이 세실리아를 태우지만

단단했다



쿠사카베 린: (히익 단단해)



호인.: 찢 결계인가

라는건가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샤를의 빛을 붉은 빛 결계로 튕겨내는군요

"알보지마!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크웃...어째서 사라지지않는거지.."

아라쉬

턴



아라쉬: 그럼

12를 써서

그림자 부수기

전도 부여!

되려나



호인.: 신나는 다구리의 시간이지만

호인 기절

생명연소 쓸까요 님들?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살리면되지)



호인.: (넵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....!"



쿠사카베 린: (대사 보면 남은 HP가 그렇게 많진 않을 느낌이긴 한데...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쓸모없는짓을!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2단 진화 하겠쥌 보는데)



쿠사카베 린: (나쁜 놈은 빨리 죠져얏!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넘어지려는 순간



호인.: 2단진화ㅋㅋㅋ



쿠사카베 린: (2단 진화 야메떼...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십자가가

나타나

다레스를 지탱합니다.



아라쉬: 문워크 같은



쿠사카베 린: (아직 진정한 힘을 숨기고 있다던가 양심에 찔리지 않습니까 보스!)



아라쉬: 상황이겠네요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《견고한 육체》



쿠사카베 린: 앓...아아
문워크..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《견고한 육체》

타이밍: 방어 거리: 사용자

대상: 사용자 코스트: 없음

개요: 어떠한 힘에 의해 통각을 차단하여 불리한 상태에서 즉시 복귀한다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효과: 특수효과.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다. 대상은 【생명력】을 5소비하는 것으로 [기절·전투불능·사망]이외의 불리한 [상태변화]를 임의로 1개 [해제]한다. 이 《텔런트》는 [방어]를 소비하지 않고 1턴 중 2회까지 사용가능하다.



아라쉬: 너도냐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보스데스카라

데미지5

받

받



아라쉬: 그럼

특수에서 양식

2를 사용

rolling 2d6+9

(2 + 1)+9

= 12

캐

지금까지 다이스가 좋았던



아라쉬: 반동이 돌아왔어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회피 13



아라쉬: 고정인가요?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네



아라쉬: 2와 사를 교환

14로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명중



아라쉬: -

rolling 2d6+21

(1 + 5)+21

= 27

26물리데미지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장갑4



아라쉬: 다리를 걸었는데 저절로 다시 서는 모습을 보고
재빠르게 화살을 날리며 거리를 벌리겠네요

-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어깨에 화살이 박히지만
바로 뽑아버립니다.

"콧..."

다음 호인턴



호인.: 기절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신의 사랑을 받는..나는..나는 여기서 질리가.."
"아니야....."



쿠사카베 린: 김기절.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나는 다시....다시 아무것도 못하고.."
"아아..아아!"

《가공할 영위》

타이밍:상시 거리:사용자

대상:사용자 코스트:없음

개요:일정이상 부상당한 시점에서, 육체 그 자체가 개념의 구현화를 발생시켜, 전투력을 크게 상승시킵니다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효과:상시효과. 대상은 남은 【생명력】이 200이하가 된 시점에서 [능동판정]의 달성치
에 +1, [데미지 산출]시에 +2d의 수정을 더한다.



쿠사카베 린: (나넛...)
(나니오 스룬다야!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아직도 과거에 잡혀있는거네.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붓코로스!!!!

호인기절이군요

다음으로

넘어가서

린째응

하왈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하왈



쿠사카베 린: "슬슬 헛소리도 하지 못 할만큼 엉망으로 해주겠어!" @사망플래그



이치노스케: 일단 애부터
드디어 딜을 ㅠ

일단 이동합니다

6마스

접근

무기공격-5d+29



이치노스케: 명중고정18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명중



이치노스케: rolling 5d6+29

(4 + 6 + 4 + 5 + 3)+29

= 51

[부처를 믿으라아아!] 팻말로 후들거 팝니다

[아미타불!]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콧...네녀석!"



이치노스케: [아미타불!]

@퍽퍽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@지팡이로 막지만 역부족!

장갑4



쿠사카베 린: 제 차례군요

비전의 신언

영력은 3을 소모

랭크+1

간이이동으로 뒤로 한칸

무기공격-대상은 샤를



쿠사카베 린: 발동롤!

rolling 2d6+8

(2 + 4)+8

= 14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명중



호인.: 다구리에



쿠사카베 린: 약점이므로 +1



호인.: 장사없는 법이지



쿠사카베 린: rolling 2d6*4+12

(4 + 5)*4+12

= 48

32입니다

@지지지직!

"충격요법으로 정신차리게 해주겠어!"

전기찜질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@빛의 방패로 빗겨내지만 그래도 역부족!
결계7



쿠사카베 린: 대충 70정도 깎았나..
턴 엔드입니다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다음
세실리아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흠...
@호인 피 몇이죠?
(호인짱...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쥬거있음
호인짱



호인.: 0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기절중



호인.: 기절중임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흠...그러군)
@일어나라....
@용사여 깨어나세요



호인.: 우어어어어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시자소새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소생마술
@2를 써서 살립니다
"흠, 죽어도 죽지 않는다..."



쿠사카베 린: (시싸쑈쑈를 사용했다!)



호인.: @쓰러진 호렐이가 다시 일어섭니다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내 이명을 까먹지 말라고."
@여전히 차가운 적의를 보이면서 붉은 마력을 날려 호인을 살려내요
@엔드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종료타이밍
영력회복



호인.: @세실리아의 마력이 호인을 부활!

rolling 2d6

(1 + 6)

= 7

흠터레스팅

그리고 세실리아의 영력유전의 효과로

5를 6으로 바꿉니다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넵

영력회복해주시정

아라썬

린



아라쉬: rolling 3d6

(1 + 3 + 1)

= 5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rolling 1d6

(5)

= 5



쿠사카베 린: 넵

rolling 1d6

(4)

= 4

그리고 영기울로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ㅋ

드디어

영기울



쿠사카베 린: ㅠㅠ

놀리지 마라영!

5를 4로 합니다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넵



아라쉬: 썩어가는 영력다이스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4R

개시입니다.



호인.: 노 개시



아라쉬: 숨지 않는다..



쿠사카베 린: 개시 전술보조

rolling 1d6

(5)

= 5



이치노스케: 은근한 눈빛으로 강제전도입니다

구워에에엑!

팻말로 조인트!

조인트!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《견고한 육체》

타이밍:방어 거리:사용자

대상:사용자 코스트:없음

개요:어떠한 힘에 의해 통각을 차단하여 불리한 상태에서 즉시 복귀한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개시 전투력 강화



이치노스케: (칫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대상은 린이다



쿠사카베 린: 압도적 감사

개시 종료

이번턴은 19행동력이다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55를 사용, 현재영력 44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---

린턴

(개념파괴 맞으면 흑가는거시다)



쿠사카베 린: 일단 5로 비전의 신언

준비소모는 없고...

일회용주물 사용합니다

데미지 산출에 +1d

무기공격 대상은 샤를

약점으로 +1, 비전의신언+1, 아까 강화로 +1...



쿠사카베 린: 일단 발동롤!

rolling 2d6+8

(3 + 5)+8

= 16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명중



쿠사카베 린: rolling 2d6*5+12

(1 + 4) * 5 + 12

= 37

rolling 1d6

(2)

= 2

32+2

34데미지입니다 마뎀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결계7!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저 화장실점...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ㅏ 네_

"크윳! 아까부터 계속해서! 귀찮게!"



쿠사카베 린: @찌지지직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@전기를 견뎌내며



쿠사카베 린: "전기고문 이DA!"



이치노스케: [무기공격이DA!]

친절하게 명중해주는 팻말어택

명중고정 18

데미지 로울

rolling 5d6+29

(4 + 4 + 5 + 5 + 6) + 29

= 53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쿣

강하다

장갑4



이치노스케: 49!

[부처 믿으라고 이것야]

@퍽퍽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크윳..사라져라!"

샤를 툰

@준비 비전

@컨센

@공격 일갈

@대상 이치노스케



이치노스케: [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~!]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엘레멘탈 버스트

rolling 8d6+26

(3 + 4 + 3 + 2 + 5 + 2 + 4 + 5)+26

= 54

54데미



이치노스케: [이대로 끝날 거라곤 생각하지 마라~!]

@꿀까닥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@이어서 십자가를 소환해
아라쉬를 거냥합니다.



쿠사카베 린: "홀룡했어... 이치노스케!"

@눈물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왔습니다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일갈!

발동 21



쿠사카베 린: (76깎았네요 HP)



호인.: 죄송하지만 피가 1밖에 안남은지라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그래요?



호인.: 방호맨은 영업 쉽니다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그럼 때려야ㄸ..



쿠사카베 린: 음엑



호인.: 어..

말하지 말걸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개이득이네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1피남은걸로 공격뺨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아라쉬 저항해주세요



아라쉬: 히힃<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발동 21

참 쉽죠?

^^



아라쉬: rolling 2d6+1

(3 + 2)+1

= 6

코로세에에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rolling 7d6+16

(2 + 4 + 6 + 2 + 1 + 1 + 1)+16

= 33

33데미지



아라쉬: 결계 2

31 데미지 받고 털썩



쿠사카베 린: 히이이엑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그리고
린에게

쿠사카베 린: "아라쉬이!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@이어지는 언령!



쿠사카베 린: (야메떼!)



호인.: "크읍...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다음은 너다..망할 꼬맹이..."

아라쉬: 갓츠가 발동할때 까지
쿨타임이 좀 있음
ㅋㅋ;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@일갈!



호인.: @달려가려다가 고통에 주저앉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발동 21



쿠사카베 린: "큭... 버터내보이겠어!"

rolling 2d6+6

(2 + 1)+6

= 9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방호 안되여?)



쿠사카베 린: 무리데시타



호인.: 됩니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;;음.)

호인.: 아라쉬랑
린

누구에게 쓸지 고민하다가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아니 탱커 역할이 공격 대신 맞고 눕는건데)



호인.: 아라쉬는 이미 뺏어버립니다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데미지는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턴 남은 사람 지켜야 당연히;;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rolling 7d6+16

(5 + 2 + 5 + 5 + 4 + 5 + 6)+16

= 48

48데미지



호인.: 선언이 늦어버렸엉;;



쿠사카베 린: 주사위 웰케 5가 많죠!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5555

호인 방호?



쿠사카베 린: 조작이다!

(ㄸㄸㄸ)



호인.: 아라쉬는 이미 맞은거죠?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네



호인.: ㄸㄸㄸ

코스트 5쓰고 방호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네

데미지 받아주시고..

누우시면됩니다!



호인.: (잠시 정신을 뺏버렸습니다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아라쉬 일어나셔야할듯)



쿠사카베 린: (호인...)



호인.: (아라쉬 막을걸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하아...하아..하아.."



아라쉬: 그럼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순식간에

주변을



아라쉬: 생명연소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초토화 시킨뒤 숨을 내뿜습니다.

네



호인.: @하지만 린대신 호랑이가 한마리 쓰러져있습니다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....!? 또.. 자기희생...콧..머리가"
"저 모습 어디선가.."



호인.: (미안해요 아라쉬
(잠시 정신을 뉘가지고;



쿠사카베 린: "호짱!" @쓰러진 호짱을 보고 눈물



아라쉬: 그럼 흠어졌던 마력이 다시 아라쉬에게 모여들면서
일어섭니다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(눈물만 흘린다)



아라쉬: rolling 2d6

(4 + 4)

= 8



쿠사카베 린: (원래 그런 거야)



아라쉬: 영문 8 소모



쿠사카베 린: (읍읍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넵



아라쉬: "미안. 살아있는 녀석들을 두고, 아직 사라질 순 없거든."

-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너..아직..!"
@황급히 옆을 돌아봅니다.



아라쉬: 그럼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아라쉬턴이군요



호인.: 이번엔 호인맨도 생명연소를 쓰겠습니다
보—스전이라는걸 까먹



아라쉬: 준비는 없고...

특수 양식

공격 영웅혼의 일격

각각 1과 2의 영력을 사용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회피 13입니다.



아라쉬: 아

그렇지

준비에

[장비]중, [준비]를 1회 소비하면 그 턴 중 【명중】판정의 달성치에 +1의 수정을 받는다.

이걸 쓸게요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두둥!

넹

명중+1하시구



아라쉬: rolling 2d6+10

(3 + 4)+10

= 17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명중

이지만!

《금단의 기적》

타이밍:특수 거리:전투지대

대상:1체 코스트:없음

개요:금단의 업을 이용하는 것으로 인과의 흐름을 방해하여 물리법칙을 왜곡해, 모든 결과를 바꿔버린다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아직...이다!"

@신의 기적이다!

과앙!

아라쉬 주변으로 수많은 십자가가 떨어지며

화살을 쏘는것을 방해합니다.

"하아..하아.."



쿠사카베 린: (하나하나 스킬이펙트는 엄청 멋진...)

(쿿....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다음

호인이지만

기절이시군요?



호인.: 생명연소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네



호인.: 음

연소대상은 세실리아고

rolling 2d6

(2 + 5)

= 7

7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네 호인은 일어납니다

체력만큼 회복하시구



호인.: 넵

"아직이다..!"

"아직!!"

@눈물흘리는 린을 뒤로하고 일어섭니다
전—투이동
요렇게 이동



호인.: 하마터면
세실리아를 방호범위에서 뺄뻔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ㅋㅋ
자 오시죠
많이
지친표정으로
호랑이를 노려봅니다.
"허억..허억..."



호인.: 영위격(1) 천지공(6) 개념파괴(키리코)
.!!
일단
명중부터 하시고
개념파괴를
회피 13입니다.



호인.: 알겠습니다

rolling 2d6+9

(5 + 5)+9

= 19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하이
명중데시타
개념파괴 굴 ㄱㄱ



호인.: rolling 1d6

(6)

= 6

?!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헐
랭크6추가



호인.: 총 10랭



쿠사카베 린: 호고곡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데미지 ㄱ



호인.: "캐롤을 위해서다 고통스럽더라도 네게 빛을 보여주마!!"

rolling 2d6+18

$$(\boxed{6} + \boxed{5}) + 18$$

$$= \boxed{29}$$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카



호인.: 60+18

78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마무리입니다.

"으아아아! 불신자 따위가아!"



호인.: @샤를에게 달려들어 그의 몸통에 주먹을 꽂아 넣어
바닥에 내리꽂습니다!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@십자가를 소환해

호인의 주먹을

막아봅니다만...

이내 손쉽게 부서져버립니다.

카앙!

투과아아앙!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커헭!"



호인.: "...."

"그만 눈을 뜨거라"

"그리고 동료들에게 돌아가거라...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으음..! 나는..! 나의 신..은"

샤를의 몸에서 어두칙칙한 아우라가 샤를몸에서 나올락말락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너의 신은 누구도 버리지 않아."

"잊어버리지 말라고. 멍청이 단장아."

(마무리댄것?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네

"으음....머리가아! 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(알피를 해 어서!)



쿠사카베 린: (오흥....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(어서!)



호인.: (까만 오라는 잡아 뺨을수도 없고 오프케..

(한번 더때릴까?)



쿠사카베 린: (쿠시미타마라도 던지면 !? 음음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원하시는데로?



쿠사카베 린: 뭔가 키아이템 같은 거
받았던가

구슬...?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아뇨 그냥 샤를몸에서
사신을 내보내면
됩니다.
물리적으로든(?)
어떻게로든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럼...
@천천히 걸어서 다가가서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마무리는 되었으니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분홍빛 십자가로 머리를 한대 후려치겠네요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히익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쪼끄만거지만, 튀어나온 모서리가 있으니
@아플거야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커헭!"
검은 아우라가 더욱 출렁!
크게 밖으로 튀어오릅니다.



호인.: @튀어오르는 타이밍에 맞춰
영력을 모아 주먹으로 강타합니다
천지공!



쿠사카베 린: '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...!'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쿨럭!"
(집단린치요)
호인의 주먹에 맞자



호인.: (정화의식[물리]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검은 아우라가
샤를의 몸에서 튕겨져나와
이내 소멸합니다.

전투종료

".....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잠시 눈을 깜박이다가...
허리를 일으켜세웁니다.
"사람을 깨우는 방식이 너무 거치군요.."
@쿨룩쿨룩



호인.: "거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있다만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@이리저리 손을 움직여봅니다.



호인.: "이런식이 아니면 사신을 쉬이 튕겨내기란 어렵지"

"그래도 버텨내지 않았느냐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.....멍청이."



호인.: "하하!"



호인: @뽕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.....죄송하군요."

@세실리아에게 고개를 숙인다.

"여러분들에게도.."

"큰 폐를 끼쳐버렸네요."

@몸을 일으키려다가 다시 휘청 주저앉습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교리까지 까먹고...뭐하는거야 대체.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자세히보면

왼쪽 다리가

사라지고있습니다.



호인: "...사죄를 해야만 하는 일은 아니다.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...으으.



호인: "네덕에 캐롤에게서 진위를 들을수 있었으니말이다"



쿠사카베 린: (앗... 사라지는가...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이런...죄송해요. 이상태로 이야기해야겠네요"

@별로 자신이 사라지는거에 대해서는

@놀라지않는다.



호인: @꼬덕..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아마도 사신에게 영혼을 너무 먹혔던 탓이겠죠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그러니까...왜 바보같이 사지로 걸어 들어가자고 해서...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하하..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살짝 원망을 담은 눈이네요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였어"

"비록 우리는 실패했지만...세실리아가 성공해줬잖아?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그럼 왜 난 살린거야!"

@때린다

@사실 캐롤이 살렸지만..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...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이 녀석도 똑같은 짓을 했을테니까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좀더 세상을 봐주길 원했으니까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또 때리려다 그대로 멍치 하고는...손을 내려요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언제까지 자신을 비하하고 낮추고 자해한채 죽어버리면.."

"자신이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다는것도 모른채 죽는다는건.."

"슬픈일이잖아?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미워하라고, 미워하라고 그렇게까지 말했는데...왜, 어째서...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동료니까...일려나?"

@굵적

"여기있는 다른 동료들도 똑같은꼴"

@호인과

@아라쉬

@린을 바라보며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럼 돌아섭니다.



쿠사카베 린: @멋쩍게 웃습니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죽어버려. 가서 아버님한테 교리부터 싹 다시 가르쳐달라고 해.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하하..혼나지나 앓을려나 모르겠네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거칠지만..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허리까지

사라져있죠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천국으로 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조금밖에.."

"시간이 안남았지만"

"궁금한게 있다면 대답해줄게요"

@호인과 다른사람들을 바라보며



호인: "...사신에게 집어삼켜졌을때..."

"무엇을 보았는가"

"자신을 조종한게 누구인지 짐작할수 있겠느냐?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....또 다른 '사신'이었어요.."

"그것도 거대한..아니 순수하다고해야하나... 그런 악의를 가진.."



아라쉬: ".....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저희 동료들은 그 '사신'에게 영혼을 속박당했습니다."

"이후 장난감처럼 부러지게되었죠"



쿠사카베 린: "사신...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마치 인형..처럼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그때 그거였어?"

@돌아선 채 물어봅니다

@울고있는게 들릴까봐요.

@물론 목소리부터 우는게 티나지만...



호인: @모르는척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그때 그 마경에서 본 '사신'이라면 틀려"
"그녀석도 우리의 영혼을 속박한 녀석의 '악의'중 하나일 뿐이야"



호인: "그럼 그 사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해낼수 있겠는가?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.....인간의 모습을 하고있었던것같아요"



호인: "인간의 모습...인가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어깨까지 사라지쥬
"앗..!"
@뭔가 갑자기 깨달은듯



쿠사카베 린: (무거워 뭐지!)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ㅇ..이럴수가!"
@ㅂㄷㅂㄷ



호인: "?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손이..사라지기전에...세실리아의 토끼귀를 만져보고싶었는데..!"



호인: ".....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@절망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시끄러!"
"어디의 변태같이 말하지 마!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입으로라도!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어째서?!"
@돌아서쥬. 그럼 눈물 젖은 얼굴이 드러납니다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뭐 농담이지만"
@피식
"마지막 가는길인데...울지말라고"
"언젠가 만날테니까"



호인: "그리고...마지막 가는길 정도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보내야하지 않겠느냐"
@자리를 비켜쥬니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.....지옥으로 따라오지 말고."
"너도 캐롤처럼 헛소리하면...가만 안둔다...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하하 캐롤이 뭔가 말한건가.. 그 아이가..응 용기를 냈구나"
"뭔가..크게 도움을 주지는 못해서..미안하네.."
"우리 영혼이 붙잡혀있던 상황이라..무언가 할 수 없었어"



호인: "그래도...마지막 힘을 짜내 캐롤을 보내주지 않았는가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흥, 이젠 이단인데 도우면 안되지."
@내가 이단이야.



호인: "우리들 모두 자신이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한것이다"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그런가..."



@조금 마음이 편해진 얼굴로
"그럼 먼저가서 기다리고 있을께 세실리아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편한대로 하세요..."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다른 동료들과 같이 만나면...그때는 웃는얼굴을 보여줘야해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내가 뭐라고 해도 죽어도 안들을거면서..."
@투덜투덜..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@다른사람들을 돌아보며
"여러분들에게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..저쪽에서도 빌고있을게요"



호인: "그래...너의 앞날에도 광명이 있기를..."



쿠사카베 린: "받아도 곤란한 기도를..." @빠질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그럼...사라지기 전에 살짝 다가가서...
@이마에 살짝 키스를 해주고는, 떨어져서 중얼거려요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(뽀뽀뽀뽀!)



호인: (키야...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@놀란표정으로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.....성녀의 키스야. 절대로 천국행이니까."
@그토록 입에 담는걸 꺼렸던 이름을 내어요



[성 미카엘]샤를 다레스: "그런가...그거 믿음...직...하..네"@웃으며
@서서히 사라져서
@하늘로 흩어집니다.



호인: "...그대들 모두를 기억하겠다 샤를 다레스"
@흩어지는 빛을 보며 나지막히 중얼거립니다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끝까지 곤란....하다고...."



Kaming (GM): 끼기각...끼기각...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바라는거 너무 많잖아...



Kaming (GM): 자세히보며 ㅏ ㄴ
기둥들이..
서서히 다시 땅속으로
사라져가고있네요.



호인: "멋진 동료들이구나 세실리아"
@사라져가는 기둥을 보며 말합니다



Kaming (GM): 주변에 영육으로 변했던 사람들도
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멋지지 않아. 귀찮아. 제멋대로야."



아라쉬: "그가 보았던 사신이란건..."



Kaming (GM): (HOXY)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투덜...투덜...하지만, 그 말에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건....



아라쉬: 주먹을 쥐어보이며. 눈을 감습니다.

-



호인: @세실리아의 말에 더 덧붙이지는 않습니다



쿠사카베 린: "아아...."



호인: "인간의 모습...이라고 했는지"

@아라쉬 말에



Kaming (GM): 기둥들은 작동을 중지하고'

다시 원래 있던곳으로 돌아가고..

사건을 해결되었습니다.



아라쉬: "아아. 어쩌면... 아니, 확실한건 좀 더 조사하지 않으면."

-



Kaming (GM): 하지만 피해자는 많았죠...



호인: "아키에게 또 신세를 져야겠구나"



Kaming (GM): 그리고...

또 한명



호인: (아야네장

>

?



Kaming (GM): 서자가 있죠.



쿠사카베 린: (서자장...)



호인: 앓...아아...미안 서자...잊고있었어(>)



Kaming (GM): 아마

아키가 본부로 이송했을것같군요.



호인: 사건이 해결됐으니 서자를 보러가야겠군요!



Kaming (GM): 우선 여러분은

사건해결을 보고하기위해 본부로 모였습니다.



와타나베 아키: "모두..고생하셨습니다"

@여기저기 먼지인걸로봐서 아키도 열심히 뛰어다닌것같습니다.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추가수당 줘. 그러면."



와타나베 아키: "주변의 이상현상도 모두 없어졌고...사쿠야님의 말로도 이제 주변의 위험은 없다고합니다."



코노하나 사쿠야: "흐므...영력을 흐트는것들은 모두 사라졌다네"



호인: "다행이로군..."

"일단락 된거같으니 안심이 되는구나"

-  와타나베 아키: "그리고 서자님의 몸상태는 특별히 이상은 없으시네요 단순한 영력과소비로 인한 피로로.."
-  서자: "....."@터벅터벅..
-  쿠사카베 린: "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도 많네.." @하아, 한숨을 쉽니다
-  서자: 문옆에서 일어나옵니다.
-  호인: "서자!"
@서자에게 다가갑니다
-  서자: "호인...여기는?"
-  호인: "특대본부다 이제 걱정할것 없다"
-  서자: "특대..본부.."
-  와타나베 아키: "네 안심하세요. 여기는 안전하니까.."
-  서자: "....."
"내 동료들은..?"
-  호인: "....."
@그 말에 아키를 돌아봅니다
-  미츠루기 아야네: "....."
@절레절레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사신에게 당했다?"
@뭘 예상은 가지...
-  와타나베 아키: "확인해봤지만....생존자는.."
-  서자: "그런가..꿈이...아니였구나"
"나 동료들을 지키지못한거야.."
-  호인: "네가 열심히 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으니 자책할 필요는 없다...."
@서자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가져다댑니다
-  서자: "나 호인처럼..되고싶었는데.."
"동료들을..지키는.."
@터덜터덜..
-  호인: "...."
-  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그 정도로 주눅들면 한참 멀었구나."
@뭘, 적당히 쏘아붙인다...
-  서자: "하하하..미안해 호인..그렇게 큰소리 치고..떠났는데."
-  호인: "누구나 실패를하지..."
"얼마나 준비를 했건 말이다"
"동료를 잃은 상실감...분명 괴로울것이다"
"나 역시...과거엔 지키지 못했던것이 많으니 말이다"
-  서자: "고마워..호인 위로해주는구나..응 그래 여기서....주눅들면 안되지..."
@웃습니다.



코노하나 사쿠야: 그때 호인옆으로 사쿠야가 다가옵니다.

"그대..이쪽은 누구인가?"

@사쿠야가 호인에게 서자를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.



호인: "내 동료 십이지 중 하나인 서자이다"



코노하나 사쿠야: "그런데 어째서 사신의 기운..ㅇ"

@푸욱!



호인: "뭐...!?"



서자: "...."



호인: "서자!!"



서자: @서자의 손이 사쿠야의 가슴을 꿰뚫습니다.



호인: @재빨리 사쿠야와 서자를 떼놓으려고 합니다



서자: "내가 왜 동료들을 지키지 못했는지.."

"그건..내가 약해서야.."



호인: "무슨 소리를...!!"



서자: "강해져야해..나는 호인처럼 되기위해서.."

"호인은 강하잖아? 동료들을..지킬정도로.."

"나 말이지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먹혔...군."



서자: "그 강함을 매일 매일 매일.."

".....부러워했어.."



아라쉬: "큭."



서자: "호인처럼 되기위해..동료도 만들어봤지만.."

"결국....이꼴이야..내가 약했기때문에.."

"동료들은 죽은거야.."

"그러면 강해질 수 밖에 없잖아.."



아라쉬: 서자가 꽃은 팔을 잘라내려고 활을 쏩니다



서자: "나..알려준거야...강해지는법을.."

@팅!



쿠사카베 린: (히이이익)



서자: 채찍이 나타나

화살을 튕겨냅니다.

@푸확!



호인: @너무나도 충격받은 나머지 그 광경을 멍하게 바라보다가..



서자: 그리고 손을 빼면..



호인: "절편...!!"



서자: "영핵..."
"이것만..있으면..."



호인: "안됐다 서자!!!"
"유혹을 이겨내라!"



서자: 서자의 등뒤로....검은손이 여러개 나타납니다.



쿠사카베 린: "안 돼! 멈춰!" @경악합니다



호인: @막무가내로 서자에게 달려들...다가...
?????: "잘했어 키크..나의 장난감"



호인: "네이놈!!"
?????: "너의 소원은..."
"내가 이루어줄게..."
@서자를 끌고
@어디론가 사라집니다.



호인: "거기서라 서자!!!"
"서자!!!!"



코노하나 사쿠야: "쿨럭....큭..."



시로: "공주!!"



호인: "으아아!!!!"



쿠사카베 린: "사쿠야짱!"



시로: @다른 방에서
@시로가 날라웁니다.



쿠사카베 린: (누구야!)



호인: @당장 자리를 박차고 달려나갑니다
(시로요



와타나베 아키: "빨리 추적을!"
@아키는 직원들에게 서자의 추적을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.....기다려."



코노하나 사쿠야: 인간화한 시로입니다.



시로: "이런...영핵을 빼앗겼어.."



코노하나 사쿠야: "헉...헉..시로 미안하구나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저 사신의 검은 손...



Kaming (GM): 어디선가 본적있지요?



시로: "공주님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...어디더라...



아라쉬: "...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@기억...나나...?



코노하나 사쿠야: 사쿠야의 영력이 점점 사라져갑니다.
세실리아가 마경에서 싸울때 보았던 검은 그림자들과 유사합니다.



쿠사카베 린: "이럴수가..."



시로: "....."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아, 지긋지긋해."
"분명 그때 태워죽었을 텐데..."



시로: "임시방편이지만....."
@시로는 눈알유령모양으로 돌아갑니다.
그리고 돌린 사쿠야의 가슴으로 들어가죠
"내가...잠시동안..영핵을 대신하겠다.."
"하지만 정말로...잠시뿐"
"이대로라면..."



시로: "공주님은 소멸해버리고 말아.."



키리코: "하아..하아..."



쿠사카베 린: (키리코까지!)



키리코: 사쿠야의 영력을 대신받고있던
키리코도 영향을 받는것같습니다.



와타나베 아키: "설마...이런일이.."



시로: "영핵을..되찾아야해..안그러면 큰..일이"



Kaming (GM):



세실리아 슈발츠발트 : "해야할 건...명확하네에."



Kaming (GM): 사쿠야...하사시로 대영맥의 영핵을
가지고 사라진 서자...
그리고 그 서자를 데리고간 검은손...
하사시로에..다시한번 드리우는...어둠
=====

오늘은 여기까지



호인: 악!!!



Kaming (GM): 수고하셨습니다.

^^



호인: 고생하셨습니다



아라쉬: 고생여~



호인: 아악!!!!
이럴줄 알았어!!